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제386호
2026년 7월호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www.snuaa.org

발행인: 황효숙 편집장: 신복레



미네소타주 블루밍턴에서 열린 서울대 미주동창회 제35차 평의원 회의에 참석한 동문들이 6월 27일 평의원 회의를 마치고 이준식 모교 총동창회장과 한 자리에 모여 기념 촬영을 했다.

“젊고 활기찬 미주동창회” 제 35차 평의원회 성료

지부 회장 동참 늘고, 90 이후 학번 대거 참여 ‘뇌 과학 혁신가’ 이진형 교수 강연 뜨거운 관심 ‘지속 가능한 동창회’ 18대 사업 성과 확인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회장 황효숙)의 제35차 평의원 회의가 지난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미네소타주 블루밍턴의 캠브리아 호텔(몰 오브 아메리카 인근)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평의원 회의에는 미주 각 지역에서 동문과 가족 90여 명이 참석해 폭넓은 교류의 시간을 가졌고, 모교 총동창회에서는 이준식(공대 72) 회장과 송우엽(체육교육 79) 사무총장이 참석해 2박 3일간 미주 동문들과 격의 없는 소통을 하며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평의원 회의를 찾은 지역 동창회장과 동문들이 눈에 띄게 늘었으며, 1990년대부터 2000년대 학번 동문들도 10명 넘게 참석해 제18대 미주동창회가 지속가능한 동창회를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지난 1년의 사업 성과를 함께 확인하고 공유하는 의미있는 자리이기도 했다.

황효숙 미주동창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미주동창회는 미주 동문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 함께 숨 쉬는 소중한 공

동체”라고 역설하며 “이번 제 35차 평의원회가 동문 간의 따뜻한 추억을 쌓고, 우리가 함께 나아갈 미래의 비전을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필라델피아 지부의 김영석(음대 74) 회장은 올해 처음 평의원 회의를 방문하며 손재욱 제13대 미주동창회장과 고병은(문리대 55), 전무식(수의대 61), 최종무(상대 63), 이성숙(가정대 74) 동문과 가족 등 모두 8명을 이끌고 와 필라델피아 역대 최고 평의원회 참가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2000년대 학번으로 유일하게 미주동창회 실버이사에 가입해 관심을 모았던 북텍사스 이승화(공대 03) 동문은 세대간 소통 담당 고문을 맡아 이번 평의원 회의에서 젊은 동문 영입을 위한 실행 방안을 제언해 참석 동문들의 공감을 받았다.

평의원 회의 이튿날에는 ‘뇌 과학의 혁신가’로 2026년 에디슨상을 수상한 이진형(공대 95) 스탠퍼드 대학교 교수가 ‘AI와 뇌 건강의 미래’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해 동문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



2026년 에디슨상을 수상한 이진형 스탠퍼드대 교수가 ‘AI와 뇌 건강의 미래’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하고 있다.

았다.

이 교수는 자신이 설립한 엘비스(LVIS)의 AI 기반 뇌 질환 진단 플랫폼 ‘뉴로매치’를 통해 보이지 않던 뇌의 전기적 신호를 시각화하여, 난치성 뇌 질환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하는 혁신적인 과정을 설명해 강연장을 뜨거운 박수갈채로 가득 채웠다.

한편, 지난해 직접 미네소타를 방문해 18대 미주동창회 출범을 축하했던 유희림 서울대 총장은 올해는 영상을 통해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유 총장은 “귀중한 자리에 참석하지 못

해 아쉬움이 크다”면서 “서울대학교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주셨고, 모교의 성장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미주 동문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는 인사를 전했다.

첫날 가야금 연주와 환영 만찬, 장학금 수여식으로 시작된 평의원 회의는 이튿날 지난 1년간의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본회의를 거쳐, 마지막 날 황효숙 미주동창회장의 초대로 미네통카 호수에서 크루즈 선상 파티를 즐기며 동문들과 소중한 추억을 쌓는 것으로 뜻깊은 여정을 마무리했다.

서울대 미주동창회 주소

SNU Alumni Association USA

855 Village Center Drive, Suite 357, North Oaks, MN 55127

Tel: 612-280-7589 | Email: contact@snuaa.org

“미주 동문의 개척 정신 이어받아 월드클래스 대학으로 도약할 것”

유홍림 서울대 총장

존경하는 미주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총장 유홍림입니다.

미주 전역의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애와 연대를 다지는 평의원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귀중한 자리에 참석하지 못해 아쉬움이 큼니다만 영상으로나마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랑스러운 동문 여러분, 미주 동창회는 서울대학교의 국제적 위상을 보여주는 상징적 네트워크입니다. 미국의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는 우리 동문들은 서울대학교의 자랑이자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동문 여러분께서는 미국 사회의 곳곳에서 탁월한 성취를 이루며 각 분야의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계십니다. 또한 미국 사회의 발전에도 의미 있는 공헌을 해오셨으며, 이를 통해 한인 사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해 오셨습니다. 이처럼 세계 무대에서 보여주신 동문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은 서울대학교의 이름을 빛내고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높이는 소중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대학교는 개교 8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지난 80년은 대한민국 발전을 이끌어온 시간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국가가 가장 어렵던 시기부터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지식 기반 사회로의 전환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며 국가 발전에 기여해왔습니다. 이러한 성취의 배경에는 국내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서울대학교의 이름을 알려오신 우리 동문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특히 미주 동문들께서는 세계 무대에서 학문과 기술, 산업과 공공영역의 발전을 이끌며, 서울대학교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주셨고, 모교의 성



장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셨습니다. 서울대학교가 걸어온 지난 80년의 역사 속에는 동문 여러분의 땀과 열정, 그리고 모교를 향한 깊은 애정이 함께 새겨져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교 80주년은 지난 성과를 기념하는 자리이자,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이제 서울대학교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대학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이 도전을 위해 서울대에 필요한 것은 미주 동문 여러분이 보여주신 도전 정신과 개척 정신, 그리고 세계 무대에서 끊임 없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온 열정입니다. 낯선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한계를 넘어 더 큰 세계에 도전하며 탁월한 성취를 이뤄낸 동문 여러분의 발자취는 서울대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우리 동문들의 이러한 정신을 이어받아 세계 유수의 대학들과 경쟁하고 협력하며 인류를 이끄는 월드클래스 대학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35차 미주동창회 평의원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동문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모교와 총동창회에 든든한 힘 미주동창회와 더욱 협력할 것”

이준식 서울대 총동창회장

존경하는 황효숙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장님, 미주 각 지역 동창회장님과 평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서울대학교 동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35차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평의원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미주 전역에서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서울대 총동창회장으로서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따뜻한 초청과 환대의 마음을 보내주신 황효숙 회장님과 임원진 여러분, 그리고 이번 평의원회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미주동창회 평의원회는 단순한 연례 행사를 넘어서 미주 각지의 서울대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여 동문사회의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지역과 세대, 전공과 직역을 넘어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이 자리는 서울대 동문사회가 왜 세계 속에서 특별한 공동체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는 그동안 모교와 총동창회에 든든한 힘이 되어 왔습니다. 학문과 산업, 의료와 공공 분야, 창업과 문화 예술 등 여러 영역에서 미주 동문 여러분은 서울대학교의 이름을 빛내 왔습니다. 또 동문 간 친목과 상호 교류는 물론, 모교와 세계를 잇는 실질적인 가교역할을 꾸준히 해오셨습니다.

특히 올해 1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SGC@CES 2026은 매우 뜻깊은 성과였습니다. 창업에 관심 있는 서울대 동문과 미주 동문들이 글로벌 산업계, 학계와 만나는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네트워킹을 넘어 서울대 동문사회가 세계 무대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앞으로 이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창업 동문을 위한 든든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미주동창회 장학사업이 서울대 국제 하계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모교와의 실질적 협력 채널로 발전하고 있는 점도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장학사업은 한 사람의 미래를 돕는 일인 동시에, 동문사회가 다음 세대와 맺는 가장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해마다 더 젊고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곳 미네소타는 서울대학교 역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



닌 곳입니다. 모교 발전의 중요한 초석이 되었던 ‘미네소타 프로젝트’의 역사적 맥락을 이어, ‘미네소타 프로젝트 II’가 서울대 의과대학과 미네소타 의과대학의 협력 속에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은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과 기대를 줍니다. 과거의 협력이 오늘의 서울대학교를 키웠듯, 오늘의 협력은 미래 세대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저는 총동창회장 취임을 맞아 “함께하는 지성 공동체, 세계로 나아가는 서울대 동문사회”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비전은 총동창회 혼자서 이를 수 있는 목표가 아닙니다. 세계 곳곳에서 모교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일하고, 봉사하는 동문 여러분이 함께 해 주실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미주동창회는 이 비전을 가장 앞서 실천해 온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올해 서울대학교는 개교 8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80년의 역사는 서울대학교가 대한민국의 지성과 공공성, 미래를 위해 걸어온 시간이자, 동문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쌓아 올린 역사이기도 합니다. 개교 80주년을 계기로 미주동창회와 총동창회가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세계 속 서울대 동문사회의 새로운 장을 함께 열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문 여러분, 서울대 동문사회는 이제 국내를 넘어 세계적 네트워크로 성장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네트워크가 이름만의 연결에 머물지 않고, 서로를 복돋우고 모교와 사회에 기여하는 살아 있는 공동체가 되는 일입니다.

미주동창회가 보여주고 있는 도전과 헌신은 그 길을 밝히는 귀한 본보기입니다.

이번 제35차 평의원회가 미주 동창회의 더 큰 도약을 준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나누는 논의와 우정, 다짐이 미주 동창회의 미래뿐 아니라 서울대 동문사회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동창회 미래를 여는 여정, 함께해 주신 동문님들 환영합니다"

황효숙 서울대 미주동창회장

존경하는 평의원님과 지부 회장님, 자랑스러운 미주 동문과 내외 귀빈 여러분, 제35차 평의원회에 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한국에서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이준식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장님과, 따뜻한 축하 영상을 보내주신 유홍림 총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8대 회장단은 '지속가능한 미주동창회'를 과제로 일해왔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지속 가능성은 단순한 조직 유지가 아니라, 선배님들이 쌓아 올린 전통이 다음 세대의 가슴속에서도 살아 있는 의미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지난 한 해 운영 기반을 다지고 지부와 소통과 연결을 강화했으며, 디지털 인프라를 정비하고, 사회 기여 차원에서 지부 음약회 지원 등을 통해 나눔의 정신을 실현했습니다. Entrepreneurship Network와 SNUAA Forum을 통해 동문들의 지적 역량을 강화하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차세대를 향한 프로그램들도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첫째, 서울대 국제하계프로그램(ISP)과 연계한 SNUAA USA 장학프로그램은 미주에서 자란 젊은 세대가 서울대와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둘째,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SNU Global Connect @ CES 2026과 그 정신을 잇는 SNUAA EDGE 프로그램은 젊은 창업가와 연구자, 미국과 한국의 기업인과 투자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네트워크를 여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AI Discovery Club과 Forum My Way는 시니어 동문의 디지털 전환과 삶의 기록을 돕고, 여기에 시니어 동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Sustainable Research Project가 더해지며, 미주동창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입체적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2차년도에는 이 성과를 더 견고히 하고 구체적인 결실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개교 80주년을 맞은 올해, 유홍림 총장님께서 'AI 네이티브 캠퍼스'를 핵심 비전으로 삼아 교육·연구·행정 전반에 인공지능을 내재화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국제화(Globalization)를 추진하고 계십니다. 미주라는 현장 자체가 모교의 국제화를 잇는 무대이고 저희가 쌓아온 AI 사업이 그 비전과 맞닿아 있는 만큼, 미주동창회는 AI와 국제화라는 두 축에서 모교와 발맞춰

나가는 가장 가까운 동반자가 되고자 합니다.

미주동창회의 힘은 한 사람, 한 지역에 머물지 않습니다. 미주 동문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 함께 숨쉬는 공동체가 되며, 이번 제35차 평의원회는 우리가 함께 걸어갈 방향을 확인하고 마음을 모으는 자리입니다.

평의원회 첫날에는 선배들의 정성으로 마련된 장학금 수여식이 있고, 한국의 얼을 현대화한 가야금 세미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둘째 날에는 올해 에디슨상을 수상하신 이진형 교수님의 기초연설과 차이콥스키 콩쿨 수상자인 이경선 교수와 이소정 교수의 특별음악회가 자리를 빛내 줄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동문과 가족들이 Lake Minnetonka 선상에서 동문들과의 추억을 음미하며 회포를 푸는 오찬 크루즈로 제35차 평의원회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다시 한 번 제35차 평의원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헌신해 주신 집행부 임원들과 미네소타 동문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SNUAA USA 장학금 수여식, 화상으로 나눈 감사와 격려

장학생 10명 중 9명
서울대 ISP 과정 참여중
서울-평의원회 줌 연결

평의원 회의 첫날인 26일에는 서울대 미주동창회(SNUAA USA) 장학금 수여식이 줌을 통해 열렸다.

2025년부터 장학 프로그램이 '서울대학교 국제 하계 프로그램(SNU ISP)' 참여자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개편되면서 지난해 말 최종 선발된 장학생 10명 중 9명은 지난 6월 24일부터 시작된 서울대 ISP 프로그램에 참여해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 미주동창회는 총 1만 달러의 장학금 중 수업료와 기숙사비를 서울대에 직접 납부하고, 나머지 6350 달러는 학생들에게 생활 지원금으로 지급했다.

이날 조지아 지부 최화진(음대 85) 장학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장학금 수여식은 한홍택 장학위원장님 남가주에서, 장학생들은 서울에서, 사회자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각각 줌으로 참여했고 고광국·고국화, 이경애, 김권식 동문과 황효숙 회장 등 지명 장학금 후원자들은 평의원 회의장에서 학생들에게 따뜻한 격려사를 전했다.

지리적 한계를 넘어 4곳을 실시간으로 연결한 이번 수여식은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동문 사회의 새로운 소통 방식을 실감케 하는 자리였다. 장학생들은 자신의 이름이 호명될 때



김종섭 전 총동창회장이 후원하는 'SNUAA 삼익 장학금'을 받은 아림 정(카네기 멜론대)양이 줌 수여식에서 미주 동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



지명 장학금 후원자인 이경애 동문이 장학생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고 있다.

다 간략한 자기 소개와 함께 감사의 뜻을 표했으며 후원자들은 한국에서의 새로운 배움과 경험을 마음껏 누릴 것을 당부했다.

장학금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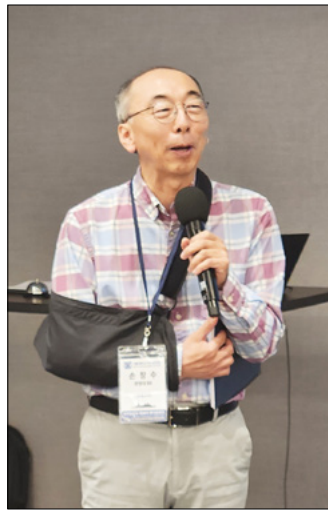
- ▶Gloria Cho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 ▶Arrim Jung (카네기 멜론 대학교)
- ▶Isaac Kim (UC 샌디에이고)
- ▶Joy Lee (노스웨스턴 대학교)
- ▶Hannah Lee (UC 데이비스)
- ▶Jennifer Lee (프린스턴 대학교)
- ▶Matthew Lee (일리노이대 어바나 샴페인)
- ▶Lauren Lee (UC 버클리)
- ▶Mia Martinez (노스웨스턴 대학교)

▶Jaeyi Song (컬럼비아 대학교)
황효숙 회장은 시상식에 앞서 "현재 10명의 장학생 중 7명은 지명 장학금으로, 3명은 동창회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장학금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가치있는 투자인 만큼 10명 모두, 나아가 그 이상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고 호소했다.

이준식 총동창회장은 "서울에 복귀하면 장학생들을 초청해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현재 총동창회 장학금 규정은 서울대 재학생 대상이

지만 일단 한 두 명이라도 미주 동문 자녀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임원진과 논의해 보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장학금 운용과 관련해 장학생 중 일부를 서울대 동문 중에서 선발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워싱턴 DC 오인환 전 미주동창회장은 "미국 내에서 학업과 정착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유학생 후배들에게 미주동창회 장학금은 실질적인 격려이자 취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동창회 차원에서 진지하게 검토를 요청했다.



제35차 평의원회에서 사업 보고를 한 미주동창회의 임원과 고문들. (왼쪽부터) 공대 2003학번으로 세대간 소통 담당 고문을 맡은 이승화 동문, 손창수 재무국장, 이희운 지속가능 발전기획 담당 고문, 이준수 회칙위원회 위원장.

‘지속 가능한 동창회’ 기반 마련 ... 힘찬 도약을 향하여

제18대 주요 사업과 2차년도 계획 발표

건강한 노년 지원 위한 프로그램 준비 중

서울대 미주동창회 최고 의결기구인 평의원회는 매년 개최되는 연례 행사로, 미주동창회 본부와 각 지부 평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1년간의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 추진할 주요 사업과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며 동창회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는 소통과 화합의 장이다.

지난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간 열린 제 35차 평의원회에는 전체 평의원 121명 중 52명이 직접 참석했고 35명이 위임장을 보냈다. 특히 선출직 평의원이 17명이나 참석한 것은 지부와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미주동창회 활동에 대한 일반 동문들의 관심이 한층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반가운 신호로 기대를 모았다.

황효숙 회장은 제2차년도를 시작하며 이희운 지속가능 발전기획 담당 고문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지명하고 평의원회 인준을 받았다.

18대 미주동창회의 주요 사업과 2차년도 사업 계획 등을 중심으로 제35차 평의원회 주요 일정을 소개한다.

▶장학위원회

제18대 미주동창회에서 장학위원회와 IT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헌신한 한홍택(공대 60) 동문은 새롭게 개편된 장학 프로그램에 대해 “우수한 한인계 대학생들이 서울대 하계강좌를 통해 서울대에서 함께 공부하며 교류하고 네트워크를 쌓아 훗날 서울대 가족으로서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그 취

지를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지원자들의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며 애써준 김광수(자연대 73), 문성인(공대 88), 신응남(농대 70), 임헌민(공대 84), 이준수(공대 76), 임준원(공대 77), 최인숙(약대 76), 최화진(음대 85) 장학위원에게 각별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현재 운용 중인 장학 기금 현황에 대해서는, 고광국·고국화 동문이 약정한 100만 달러 중 기탁된 35만 달러와 한백 장학금 1만달러가 현재 잔고로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IT위원회

기존의 SNUAA 포럼과 Entrepreneurship 네트워크에 더해 18대 미주동창회에서는 AI에 대해 공부하는 ‘AI 디스커버리 클럽’과 AI를 활용해 동문들의 회고록 쓰기를 돕는 ‘MY Way’ 포럼이 새롭게 출범했다. 이로써 미주동창회는 매달 4개의 정기 줌 미팅을 운영하게 됐다.

미주동창회 공식 홈페이지(snuaa.org)는 본부 소식은 물론 각 지부에서 전해오는 생생한 행사 소식과 일정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다. 또한 SNUAA 비디오, SNUAA 마켓, 디지털 라이브러리 등 다채로운 콘텐츠 선택을 갖춰 매일 최소 350여 명의 동문이 꾸준히 찾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회칙위원회

이준수(공대 76) 회칙위원장은 “지



평의원회 보고와 질의를 경청하고 있는 고국화 동문(맨 앞쪽). 황효숙 미주동창회장과 이준식 서울대 총동창회장, 그 뒤로 왼쪽 끝에 박상근 차기 미주동창회장의 모습이 보인다.

난 1월부터 6월까지 4차례의 줌 회의를 통해 회칙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미주동창회 정관에 맞춰 하위 회칙과 운영 세칙의 모순을 해소하고, 현행 조직 운영의 현실을 충실히 반영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차기 집행부로의 공백 없는 이행을 위해 법적, 재무적 자료를 중심으로 인수인계 목록을 정리했고 기금관리 및 후원 체계를 분리하고 조직도를 실질적인 의사결정 구조로 재편했다”며 평의원회에 해당 개정안에 대한 가결을 요청했다.

한편, 제18대 2차년도 주요 사업과 관련, 양경호 EDGE 위원회 위원장은 “오는 8월 14일~15일 샌프란시스코 공항 인근 더 웨스턴 호텔에서 젊은 동문들을 위한 네트워킹 행사 SNUAA EDGE 2026을 개최한다”며 “창업가,

연구자, 기업인, 투자자 등 현장의 동문들이 교류하며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자리인 만큼 관심을 갖고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새 사무총장으로 인준을 받은 이희운(농대 84) 지속가능 발전기획 담당 고문은 “고령 동문들의 건강한 노년과 삶의 질 향상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탐색하기 위한 동문 인터뷰를 조만간 시작할 계획”이라며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지원하기 위한 동창회 차원의 전략과 프로그램 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의원회 본회의가 끝난 후에는 1994년 차이콥스키 콩쿠르 입상자인 바이올리니스트 이경선(음대 84) 인디애나 음대 교수와 피아니스트 이소정(음대 84) 교수(저드슨 유니버시티)가 특별 음악회를 펼쳐 동문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올해 평의원회는 동문들의 활발한 의견 개진으로 매우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왼쪽부터) 질의를 하고 있는 남가주 김병완 동문, 뉴잉글랜드 오세경 동문과 워싱턴 DC 이경애 동문, 미주동창회 사무총장을 한 박현아 동문과 문성인 고문 부부, 손재욱 제13대 미주동창회장.

영예의 공로패 수상 동문들



제 35차 평의원회 둘째 날인 27일, 유홍림 서울대 총장, 이준식 서울대 총동창회장, 황효숙 서울대 미주동창회장이 수여하는 공로패 시상식이 열렸다.

모교와 동창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은 동문들은 다음과 같다.

[총장 공로패]

송창원(문리대 53), 한흥택(공대 60), 김권식(공대 61), 노명호(공대 61), 장기남(문리대 62), 신학철(공대 75) 동문과 올해 평의원회 기조연설자로 참여한 이진형(공대 95) 스탠퍼드대 교수.

[총동창회장 공로패]

고광국(공대 54), 고국화(공대 56), 소진문(치대 58), 오세경(약대 61), 이명자(간호대 74), 이준수(공대 76) 동문.

[미주동창회장 공로패]

이경애(문리대 58), 김영석(음대 74), 이동균(공대 75), 남옥현(경영대 84), 이희윤(농대 84), 김인구(농대 87), 문성인(공대 88), 박현아(공대 88), 김량국(사대 92), 이주현(미대 92), 강경철(공대 04) 동문.

시상식을 마친 후, 수상자들이 함께 모여 기념 촬영을 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진형 교수 '시와 뇌 건강의 미래' 강연 요약

뇌의 지도를 그려 고장을 수리하다

스탠퍼드대 이진형 교수가 개발한 '뉴로매치(NeuroMatch)' 기술이 뇌 질환 진단과 치료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뉴로매치의 핵심은 환자의 뇌를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으로 정밀하게 구현하는 것이다. 기존의 뇌 진단이 증상이나 단순 영상 촬영에 의존하는 결과론적 접근이었다면, 뉴로매치는 뇌 속 보이지 않는 전기 신호 흐름을 시각화한다. 이를 통해 특정 신경 회로에서 신호가 어디서, 왜 끊기거나 왜곡되는지를 수치화하여 '고장 난 회로'를 정확히 찾아내고 치료까지 이어가는 혁신적인 방식이다.

이 기술은 치매, 뇌전증, 뇌 손상 등 원인 파악이 어려웠던 다양한 뇌 질환 진단에서 독보적인 정확도를 자랑한다. FDA 승인을 통해 의학적 가치를 공인받았으며 CBS를 비롯한 주요 매체들이 그녀를 '뇌의 지도를 그리는 선구자'로 소개하면서 이진형 교수는

많은 뇌 질환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이 교수는 최근 팰로앨토에 '뉴베라브레인 헬스인스티튜트'를 열고, 진단을 넘어 약물 처방, 초음파 및 전자기장 치료 등 개인 맞춤형 치료까지 연계하는 진료 허브를 구축했다. 그동안 기술을 개발하고 검증하며 날아오를 준비를 했다던 이제는 임상 현장에서 얻는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뇌 질환 정복을 향해 본격적인 비상을 시작할 때가 된 것이다.

지금처럼 수많은 케이스를 축적하고, 그 데이터를 통해 뇌 질환 치료의 새로운 표준을 정립해 나간다면, 머지않아 그녀의 이름은 스웨덴 왕립과학원의 가장 높은 곳에서 불리게 될지도 모른다.

그것은 단순히 한 공학자의 성공을 넘어, 인류가 '뇌'라는 거대한 블랙박스를 마침내 정복했다는 선언이 될 것이다.



27일 열린 지부 회장 모임에 참석한 회장들. 왼쪽부터 하트랜드 이주현, 조지아 김인구, 시카고 이동균, 미네소타 문성인, 워싱턴 DC 남옥현, 필라델피아 김영석 회장.

지역 동창회장들 한자리에 "분기별 모임 통해 연대 강화"

제35차 평의원회 둘째 날인 6월 27일, 미주 각 지역 동창회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활발한 소통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모임은 미네소타 지부 회장이자 미주동창회에서 지부 지원 고문을 맡고 있는 문성인(공대 88) 회장의 주제로 진행되었다.

현장에는 필라델피아 김영석(음대 74) 회장, 시카고 이동균(공대 75) 회장, 워싱턴DC 남옥현(경영대 84) 회장, 조지아 김인구(농대 87) 회장, 하트랜드 이주현(미대 92) 회장이 참석했으며, 뉴잉글랜드 원덕수(공대 72) 회장이 줌(Zoom)을 통해 합류해 총 7명의 지역 회장이 동창회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조지아 지부 김인구 회장은 "오늘 모임에 오기 전까지 솔직히 미주동창회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실감하지 못했다. 그런데 굉장히 활발히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지역 동문들에게 이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긴밀하게 소통하며 사업에도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트랜드 이주현 회장은 동문들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참신한 아이

디어로 '전국 단위 동문 참여 콘테스트'를 제안해 호응을 얻었다. 이 회장은 "일종의 역발상인데 '라떼'를 금지할 것이 아니라 학창시절 추억을 공유하는 '라떼 콘테스트'를 하면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면 지역을 넘어선 교류의 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필라델피아 김영석 회장은 "동문 단톡방에 100명이 넘게 있는데 나이 드신 선배님들은 소리를 잘 듣지 못하거나 번거로운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최근 사모님들을 단톡방에 들어오게 했더니 소통이 아주 원활해졌다"는 에피소드를 전하면서 지역 커뮤니티도 함께 하는 연말 음악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모임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각 지역 회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이디어를 나누고 연대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당장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더라도 앞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만나 아이디어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연대감이 형성될 것이라며 교류를 지속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진형 교수 강연에 대한 동문들의 관심이 커 강연을 마친 후에도 많은 질문이 이어졌다.

글로벌 AI 시대와 스타트업 - 동문 혁신 리더에게 묻다 (2)

글로벌 혁신 경쟁이 가속화되는 시대, 대학 동문 네트워크는 단순한 친목 모임을 넘어 산업과 기술, 창업 생태계를 연결하며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실질적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서울대 미주동창회보는 미국 전역에서 활약하는 동문 창업가와 벤처투자자들을 만나 그들의 통찰을 전하는 특집 인터뷰 시리즈를 마련했다.

인터뷰는 스타트업 생태계에 첫발을 내디딘 젊은 후배가 글로벌 무대에서 성과를 일군 선배를 직접 찾아가 그들의 경험과 지혜를 드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실리콘밸리 최초의 한국인 유니콘 기업 샌드버드(Sendbird) 김동신(공대 전기공학부 99) 대표에 이어 두 번째 인터뷰 주인공은 실리콘밸리를 대표하는 한인 벤처투자자 음재훈(자연대 화학과 88) GFT Ventures 대표다. 음 대표는 삼성벤처투자 미국 사무소 초대 소장, 트랜스링크캐피탈 공동창업을 거쳐 현재 GFT벤처스에 이르기까지, 지난 25년간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돕는 ‘스마트 머니’이자 한미 스타트업 생태계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해 왔다.

“기술보다 중요한 건 시장과 고객, 본질에 집중해야”

이번 인터뷰는 2024년 실리콘밸리에 진출한 벤처캐피탈, 스프링캠프(Spring Camp)의 최홍규(자유전공학부 13 경영학·심리학 전공) 파트너가 진행했다. VC 후배인 최 동문은 지난 5월 25일 음 대표를 만나 최근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AI 신(Scene)에 대한 냉철한 진단부터, 한국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진출 전략, 그리고 미주 동문 창업가들을 향한 따뜻한 제언까지 폭넓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Q1. 대표님께서 25년 이상 투자를 해오셨습니다. 대표님의 투자 철학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음재훈 대표: 첫 번째는 “내가 잘 알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수적입니다. 하나는 그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해당 업체의 시장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고객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가장 잘 도울 수 있고 잘 아는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성공 확률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창업가를 바라보는 기준’에 대한 원칙입니다. 여러 조건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가(지능이 뛰어난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지능이 뛰어난 사람들은 시장과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본인에 대한 이해(메타인지)’를 잘합니다. 본인이 잘하는 것과 본인에게 부족한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는 훌륭한 인재를 발굴하고, 그 사람을 설득해서 데려오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업체의 파운더들을 보면 평균적으로 지적 수준이 일반인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Q2. 투자자 역시 전문성과 네트워크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대표님이 이끄시는 GFT 벤처스만이 가진 차별화된 투자 경쟁력은 무엇입니까?

음재훈 대표: 저희 GFT는 약어로 쓰고 있지만, 풀어서면 Global Frontier Technology Ventures입니다. 말 그대로 첨단 기술(Deep Tech)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사실 이런 프론티어 테크나 딥테크에 투자하는 펀드는 전 세계에 수십, 수백 개가 넘습니다.

저희만의 차별화 포인트는 “우리가 가장 잘하는 AI와 로보틱스 분야에 집중한다”는 점입니다. 퀀텀, 신소재, 우주 등 다양한 첨단 분야가 있지만, 저



실리콘밸리를 대표하는 한인 벤처 투자자 음재훈 GFT벤처스 대표가 VC 후배인 최홍규 스프링캠프 파트너에게 25년에 걸친 스타트업 투자 경험을 통해 얻은 깊은 통찰을 들려주고 있다.

와 제 공동 창업 파운더인 제프(Jeff)는 AI 및 로보틱스 분야에서만 25년 이상의 투자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첫 AI 투자는 2008년 사운드하운드 AI(SoundHound AI)였는데, 이미 3~4년 전에 상장(IPO)까지 완료하여 엑시트(Exit)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 파트너인 제프는 엔비디아(NVIDIA)에서 20년 동안 투자와 M&A 헤드를 역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업계에서 저희의 스트리트 크레딧(평판과 신뢰도)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20년 넘게 이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며 쌓아온 대기업 핵심 인맥들이 북미, 유럽, 아시아 전역에 포진해 있습니다.

스타트업이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고투마켓(Go-To-Market) 준비가 되었을 때, 가장 어려운 보틀넥(병목현상)이 바로 ‘첫 고객 확보’입니다. 저희는 스타트업의 이야기를 듣고 이들의 첫 고객 후보나 파트너가 될 만한 글로벌 대기업들을 직접 매칭하고 소개해 줄 수 있습니다. 자본은 세상에 흔해졌지만, 이런 구체적인 시장 연결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Q3. AI 분야에 집중하고 계신데, 최근 AI 시장 성장을 두고 한편에서는 ‘거품(버블)론’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대표님이 바라보시는 현재의 AI 신(Scene)에 대한 견해가 궁금합니다.

음재훈 대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AI 시장의 거품이 이미 많이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AI 펀딩 초기에는 분명 밸류에이션 거품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높은 밸류에이션은 실질적인

가치 창출 때문이라기보다는, LLM(거대언어모델) 등 인프라 업체들이 트레이닝을 위한 컴퓨팅 리소스와 인재 확보를 위해 막대한 자금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었습니다. 즉, 자금의 필요성(Capital Needs)이 밸류에이션을 주도했던 것이죠. 예를 들어 월드 모델을 준비하는 업체의 경우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10억 달러(1 Billion)가 투입된다면 창업자 지분을 방어할 수 있는 미니멈 프리미니 밸류에이션이 그만큼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이 투자를 주도했던 리드 투자자들은 대부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같은 전략적 투자자(클라우드 사업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투자한 돈이 고스란히 자신들의 클라우드 컴퓨팅 매출로 되돌아오는 구조였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들이 밸류에이션에 그리 민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왜 거품이 빠졌다고 보느냐 하면, 실제로 고투마켓(Go-To-Market) 단계에 진입한 AI 업체들이 역대급으로 빠른 속도로 실적(매출)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인 매출 대비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따져보았을 때, 이제는 터무니없이 높다고 볼 수 없는 수준까지 시장이 건강해졌습니다.

Q4. AI 밸류체인 전반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프라 레이어부터 애플리케이션 단까지 다양한 영역 중 GFT 벤처스가 특히 주목하고 있는 세부 분야는 어디인가요?

음재훈 대표: 저희는 반도체나 인프라 쪽 투자 경험도 많지만, 저희 GFT가 운영하는 첫 번째 펀드 규모가 현재 미화로 1억 4천만 달러(약 2,000억 원 미만) 규모입니다. 냉정하게 이 정도 규모의 펀드를 가지고 인프라나 반도체 쪽에 투자하기에는 자금이 부족합니다. 아시아시피 인프라 쪽은 자금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AI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단에 포커스를 맞추자”고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각 산업별 ‘버티컬 인디스트리(Vertical Industry)’ 애플리케이션과 비즈니스 기능별 ‘호라이즌탈(Horizontal)’ 애플리케이션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AI 애플리케이션의 연장선상에서 하드웨어와 서비스가 결합된 피지컬 AI(Physical AI) 및 로보틱스 분야도 같은 맥락으로 골라가며 선별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Q5. AI 시대에 성공하는 창업가나 팀은 기존 시대의 창업가들과 다른 역량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창업가에게서 어떤 면모를 중요하게 보십니까?

음재훈 대표: 저는 근본적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AI 기술은 점점 범용화(Commodity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AI 전문가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만 창업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창업가들은 본인이 기술적 배경이 없더라도



실리콘밸리 GFT 벤처스 음재훈(자연대 88) 대표

➔ 훌륭한 테크니컬 코퍼운더를 찾아내서 팀을 꾸릴 줄 압니다. 게다가 지난 3~4년 동안 챗GPT 발표 이후 AI 기술 인력의 풀이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인재를 찾기도 쉬워졌습니다.

결국 창업에 성공하는 사람은 기술 그 자체보다 “시장 기회와 고객의 니즈를 명확히 파악하고 있는가”라는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역량을 가진 사람입니다. 창업가로서의 열정과 노하우가 핵심이지, AI 시대라고 해서 본질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딱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AI 시장은 ‘역대급 성장 속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엄청난 성장 속도를 하이퍼 스케일로 매니지해 본 경험이 있거나, 그런 경험이 있는 인재들을 빠르게 영입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파운더들이 조금 더 유리할 것이라는 차이 정도만 있습니다.

Q6. 최근 포럼에서 한국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방식을 야구 선수에 비유해 ‘류현진 방식(한국을 초도화하고 메이저리그 진출)’과 ‘추신수 방식(처음부터 마이너리그부터 시작해 메이저리그 진출)’으로 설명해 주신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각 방식의 장단점을 어떻게 보시나요?

음재훈 대표: 두 방식 모두 장단점이 확실하고, 둘 다 메이저리그 올스타(성공)가 될 수 있는 길입니다.

먼저 ‘류현진 방식(한국에서 시작해 글로벌로 나가는 방식)’은 한국 파운더가 한국 시장과 고객을 잘 아는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초기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국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든든한 기반 위에서 해외로 나가는 안정성이 있죠. 단점이라면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타겟팅한 제품이 아니다 보니 해외로 나갈 때 피벗이나 현지화에 큰 비용과 시간이 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추신수 방식(처음부터 미국 현지에서 맨땅에 헤딩하며 시작하는 방식)’은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과 고객의 니즈에 맞춰 제품을 개발하고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성공했을 때 곧바로 글로벌 기업이 되는 지름길이지요. 하지만 홈구장이 아닌 낯선 타지(미국)에서 마이너리그(싱글A, 더블A)의 고된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초기 생존 확률이 낮고 과정이 매우 고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20~30대로 돌아가 완전히 처음부터 인생을 기획하고 AI 창업을 한다면, 저는 당연히 시작부터 미국 현지(추신수 방식)에서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학부나 대학원, 혹은 현지 빅테크(구글, 엔비디아 등)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현지 네트워크와 메커니즘을 완전히 체득한 상태에서 창업하는 것이 현지 우수 인력을 영입하고 스케일업하는 데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 창업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로컬 네트워크와 인맥의 부재입니다. 한국에서 온 듣지도 보지도 못한 스타트업에 미국의 똑똑한 인재들이 조인할 리가 만무하죠. 마치 베트남의 똑똑한 창업가가 한국에 와서 창업했을 때 서울대, 카이스트 출신들이 조인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따

라서 본인의 역량과 배경, 네트워크의 유무에 맞춰 최적의 진출 전략을 짜는 것이 현명합니다.

Q7. 내수 시장이 작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바로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삼는 ‘싱가포르 국립대(NUS)의 유학/인턴십 프로그램 모델’을 국내 창업 생태계에 도입한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음재훈 대표: 이 부분은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싱가포르 모델은 내수를 포기하고 해외로 나가는 이스라엘 방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언론에서 강조했던 싱가포르 국립대(NUS)의 핵심은 “대학생(학부생) 시

현지의 서울대 동문회나 모임 연락을 종종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한 가지 아쉬운 점을 꼽으라면 “젊은 친구들의 참여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제가 서울대 88학번인데, 현재 동문 모임에 나가면 제가 거의 가장 어린 축에 속합니다. 저도 내일모레면 환갑인데 말이죠(웃음). 물론 제가 모르는 젊은 동문들끼리의 따로 하는 모임이나 네트워크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통적으로 이어져 오는 공식 동문 모임에는 젊은 사람들의 참여가 너무 적은 게 사실입니다. 여러 구조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세대 간의 단절 없이 젊은 동문들이 자연스럽게 유입되

챙겨주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부터도 솔선수범해서 후배들이 하는 펀드나 사업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실행하려 합니다.

Q10. 마지막으로, 이번 동창회보를 읽으실 미주 지역의 서울대 동문 선배분들께 꼭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음재훈 대표: 미주에 계신 동문 여러분, 비즈니스든 인생이든 모든 소중한 인연과 기회는 결국 ‘얼굴을 마주하는 만남’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저 역시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동문 모임 초대를 받고도 어색하다는 이



AI 및 로보틱스 분야에서 25년 이상 투자 AI 시장, 역대급 성장 속도와 매출 실적 기록 글로벌 창업 최대 장벽은 로컬 네트워크 부재 대학생 시절 현지 경험 인턴십 프로그램 늘려야

소중한 인연·기회는 얼굴 맞댄 만남에서 시작 젊은 동문 참여하는 서울대 네트워크 되려면 선배들이 후배 사업·커리어에 실질적 힘 돼야

절에 이미 글로벌 진출을 경험해 보게 하는 조기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현재 저희 하우스(GFT)에서도 이 NUS 프로그램을 통해 스탠퍼드에 와 있는 인턴 학생들을 쓰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이미 한국에서 창업을 한 기성 창업자들을 모시고 해외 신사유람단 보내듯 단기 출장을 지원하곤 하는데, 제 포인트는 창업을 한 이후가 아니라 대학생 때 이런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학생 때 현지에 와서 직접 부딪히고 인턴십을 해보면 사람마다 판단이 서게 됩니다. “어? 이 정도면 나도 실리콘밸리에서 충분히 해볼 만하겠는데?” 하고 바로 글로벌 창업으로 뛰어든 인재도 나올 것이고, “아, 꺾어보니 내 역량은 일단 한국(홈그라운드)에서 먼저 탄탄하게 다지고 오는 게 맞겠다”라고 냉정하게 판단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창업 이후에 시행착오를 겪는 것보다 대학 시절에 이러한 조기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훨씬 비용 효율적이고 강력한 글로벌 인재를 키우는 길입니다. 카이스트나 서울대 등 국내 주요 대학들도 이런 방식의 체계적인 조기 유학/인턴십 프로그램을 더 적극적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Q8. 서울대 동문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표님께서도 미주 지역의 여러 서울대 동문회나 모임에 관여하고 계실 텐데요. 실리콘밸리 현지에서 바라보실 때, 현재 서울대 미주 네트워크나 커뮤니티에서 특별히 아쉽거나 보완되었으면 하는 점이 있으신가요?

음재훈 대표: 네, 저도 실리콘밸리

고 선배들과 섞일 수 있는 통로가 부족하다는 점은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사실 저 역시도 미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네트워크를 쌓을 때는 서울대 네트워크보다는 제가 MBA를 졸업한 스탠퍼드 네트워크에서 훨씬 더 많은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는 스탠퍼드 인맥이 워낙 강력하게 묶여있고 서로 밀어주는 구조가 잘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서울대 미주 네트워크도 단순히 친목 도모를 넘어, 현지에 새로 진출하는 젊은 동문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역동적인 커뮤니티로 체질 개선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Q9. 그렇다면 서울대 미주 네트워크가 페이팔 마피아처럼 서로를 끌어주고 밀어주는 끈끈한 ‘창업/비즈니스 생태계’로 발전하기 위해 선배 세대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음재훈 대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공한 선배들이 후배들을 이끌어주는 문화가 서울대 네트워크 안에서도 훨씬 더 제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미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창업가나 엔지니어들이 서울대 출신 중에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현지에서 스타트업을 시작할 때, 서울대 선배들이 이들의 펀드에 마중물 투자를 해주거나 멘토링을 해주는 구조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저 역시 이번에 GFT 벤처스 두 번째 펀드를 만들면서 스탠퍼드 선배님들이나 알토스 한킴 선배님 같은 분들께 큰 도움을 받았는데, 우리 서울대 선배들도 “후배들이 시작하는 펀드나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유료 자주 참석하지 못했던 것을 반성합니다. 선배들 간의 만남, 그리고 세대 간의 연결은 결국 누군가 먼저 문을 두드려야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저부터 그 벽을 깨고 먼저 다가가겠습니다. 앞으로 미주 전역에서 우리 동문들이 서로 편하게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 자리에 더 많은 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타지에서 활약하고 계신 동문 가정이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과 일에 큰 성취가 있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리콘밸리의 치열한 중심에서 25년 간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켜온 음재훈 대표와의 대화는, 기술의 화려함보다 시장과 사람이라는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글로벌 무대를 꿈꾸는 후배 창업가들에게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줄 그의 행보와 GFT 벤처스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글=최홍규(자유전공학부 13)



음재훈 GFT 벤처스 대표와 인터뷰를 한 최홍규 스프링캠프 파트너.

뉴욕한국문화원장에 사범대 이정미 동문 부임

문체부에서 26년 근무
문화원 첫 여성 원장으로

서울대학교 사범대를 졸업한 이정미 동문이 뉴욕한국문화원 첫 여성 원장으로 부임했다. 이 신임 원장은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고위직인 체육협력관에 여성 최초로 임명된 데 이어, 문화정책관 등을 거쳐 지난 5월 말 뉴욕한국문화원장에 취임해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했다.

이정미(사범대 92·사진) 뉴욕한국문화원장은 로컬 한인 언론들을 방문한 자리에서 “그 어느 때보다 한국 문화의 위상이 높아진 시기에 부임하게 돼 기대가 크면서도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세계 문화의 중심지인 뉴욕에서 한국 문화의 다채로운 매력을 널리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6년간 근무하며 문화, 체육, 관광 관련 콘텐츠를 알리고 육성하는 데 노력해왔고, 그만큼의 노하우도 많이 쌓았다”며 “오랜 공직 생활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를 뉴욕 무대에서 펼치겠다”며 향후 문화원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무엇보다 “현재 전 세계

적 주목을 받고 있는 K팝과 K드라마 등 대중문화 영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한국 문화와 전통문화 등 순수예술이 가진 깊이 있는 매력을 보여줄 때”라며 “문화원이 중심이 되어 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연계, 홍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뉴욕·뉴저지 한인 문화 예술인들과의 소통 강화도 이 원장이 꼽은 역점 과제 중 하나다.

이 원장은 “기존의 공모 및 지원 사업을 탄탄히 이어가는 것은 물론, 동포 사회의 뛰어난 문화적 인재들을 발굴해 대중에게 선보이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이를 위해 관련 한인 단체들과의 협업을 한층 더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뉴욕현대미술관, 링컨센터, 메트로폴리탄미술관 등 뉴욕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문화예술 기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에도 힘을 기울인다.



‘자랑스러운 워싱턴인’ 올해 대상에 송수 박사 포토맥 포럼 11월 시상

서울대 미주동창회장과 워싱턴DC 지부 동창회장을 역임한 이영목(공대 59) 동문이 이끄는 ‘포토맥 포럼’이 제9회 ‘자랑스런 워싱턴인 어워드(Outstanding Washingtonian Award)’ 수상자로 송수 박사(간호대 66)를 선정했다.

송수 박사는 치매 케어 전문가로서 메릴랜드 주 정부 롱텀 케어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메릴랜드 컬럼비아에서 한인 실버 커뮤니티 ‘골든 리빙(Golden Living)’을 운영하며 한인 노인들의 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다. 그는 메릴랜드대 간호학과 교수 및 서울대 방문교수를 역임했으며, AI 기반 치매 진단 기술과 환자 중심의 케어법 등을 주제로 활발한 강연 활동을 펼쳐왔다.

한인 원로들의 지식 나눔을 위한 비영리단체인 포토맥 포럼은 매년 사회 기여도가 높은 인물을 선정해 이 상을 수여한다. 시상식은 11월 21일(토) 오전 11시 한인커뮤니티센터에서 포토맥 포럼 문학상 시상식과 함께 진행되며, 송수 박사에게는 상패와 상금 2,000달러가 수여된다.

여든여덟에 시집으로 펴낸 신앙 고백

김수영 동문 ‘내 작은 발걸음마다’ 출판기념회

미주동창회 실버이사인 김수영(사대 57) 동문의 신앙시집 ‘내 작은 발걸음마다’ 출판기념회가 지난 5월 30일 남가주 애너하임 늘푸른선교교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올해 미수(米壽·88세)를 맞은 김 동문이 펴낸 이번 시집에는 굴곡진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며 살아온 신앙의 고백이 진솔하게 담겨 있다. 삶의 고비마다 체험한 은혜와 감사, 그리고 믿음의 성찰이 한 편의 시에 녹아 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김희경, 신혜원 동문 등 전·현 사범대 동창회장을 비롯해 동문과 지인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출간을 축하했다. 참석자들은 김 동문의 오랜 신앙과 문학적 열정에 박수를 보내며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특히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축하 영상을 보내 눈길을 끌었다. 정 전 총장은 영상에서 학창 시절 스코필드 박사와 맺었던 인연을 소개하며 김 동문의 삶과 신앙 여정을 축하했다.

김 동문이 신앙의 길에 들어선 계기 역시 스코필드 박사와의 만남이었다. 서울대 재학 시절 스코필드 박사를 만나 성경공부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 스코필드 박사는 일제강점기 일본의 만행을 세계에 알리고 한국 독립운동을 지원한 캐나다 출신 수의학자이자 선교사로, 한국인들에게 깊은 존경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이날 행사에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인 주인공은 이란 출신의 한 여성이었다. 김 동문의 전도로 이슬람교에

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는 자신의 신앙 간증을 통해 ‘거듭남(Born Again)’의 기쁨과 감사를 전했고,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김 동문은 인사말을 통해 자신이 평생 강조해 온 ‘삼박자 축복’을 소개했다. 그는 풍성한 삶을 위해서는 영혼의 구원뿐 아니라 육체의 건강과 물질적 안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동문의 삶은 도전과 배움의 연속이었다. 그는 뒤늦게 신학을 공부해 1996년 목사 안수를 받았으며, 문학의 길 역시 늦은 나이에 시작했다. 2009년 미주문학 수필 공모에 당선되며 문단에 등단한 이후 수필집 ‘늘 추억의 저편’과 시집 ‘바람아 구름아 달아’ 등을 출간하며 꾸준한 창작 활동을 이어왔다.



김수영 동문이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자 돕기 남가주 총동창회 모금 캠페인

남가주 서울대학교 총동창회(회장 양수진)가 최근 규모 7.2와 7.5의 연쇄 강진으로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를 입은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자를 돕기 위한 긴급 구호성금 모금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동창회는 이번 모금을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며, 모금된 성금 전액을 유니세프(UNICEF)에 전달해 현지 이재민들의 구호 물품, 식수 및 의료 지원 등 긴급 구호에 사용될 예정이다. 모금 소식이 전해지자 불과 이틀만인 지난 6월 29일 동문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모금액은 5000달러를 넘겼다. 동창회는 오는 7월 15일까지 캠페인을 계속한다.

▶문의: 남가주 총동창회 (213-500-0841)

시와 함께하는 회고록 쓰기 'My Way' ... 첫 주인공은 한효동(공대 58) 동문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동문들이 쉽게 회고록(memoir)을 쓸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서울대 미주동창회(황효숙)가 마련한 온라인 커뮤니티 'My Way'가 첫 여정을 시작했다. 첫 주인공은 남가주 한효동(공대 58) 동문이다. 지난 6월 17일, 한 동문은 'My Way' 포럼을 통해 'My Journey from SNU to UCLA'라는 주제로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동문들과 나누었고 이날 공유된 진솔한 경험담은 회고록의 다섯 번째 챕터인 'The American Hwangab - An Architect's Reflection'으로 기록됐다. 동창회보는 이번 호를 시작으로 'My Way'에 참여하는 동문들의 회고록 일부를 연재할 예정이며, 첫 번째 순서로 한 동문이 전해온 한글 번역본을 소개한다.

'My Way'는 매달 셋째 주 수요일 오후 5시(서부시간) 줌을 통해 열리며 참여를 희망하는 동문은 서울대 미주동창회 웹사이트(snuua.org) 우측 중간 'My Way' 배너를 클릭하면 입장할 수 있다.

“내가 설계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은 다음 세대였다”

한효동
(공대 58·남가주)



손녀딸 엘리의 UCLA 졸업식을 맞아 거의 60년만에 캠퍼스를 찾았다. 유학시절의 두려움과 불안, 희망이 뒤섞여 있던 그 시절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내년이면 내가 미국 땅을 밟은 지 꼭 60년이 된다. 나만의 '미국식 환갑'을 맞는 셈이다. 우리 전통에서 환갑은 인생의 큰 순환이 완성되는 시점이며,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고 새로운 장을 준비하는 중요한 이정표다.

최근 UCLA 캠퍼스에서 손녀의 졸업식을 지켜보며 나는 문득 그 의미를 깊이 실감했다.

처음 UCLA에 발을 디딘 지 59년이 흐른 뒤 다시 찾은 캠퍼스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새로운 건물들이 곳곳에 들어서며 과거의 모습은 대부분 사라졌다. 그러나 로이스 홀(Royce Hall)과 파월 도서관(Powell Library) 사이의 넓은 광장에 서는 순간, 시간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 공간만큼은 1960년대 후반과 똑같았다.

순간 나는 손녀의 졸업을 바라보는 할아버지가 아니라, 낯선 나라에서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던 젊은 유학생으로 돌아갔다.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희망이 뒤섞여 있던 그 시절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내가 성장한 한국은 아직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나라였다. 대학을 졸업해도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 어려웠고, 미래를 꿈꾸기 위해서는 유학이 거의 유일한 선택지였다.

미국으로 떠나기 전, 나는 고종황제의 손자인 이구 선생의 건축사무소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다. 그는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세손이었지만 동시에 MIT에서 건축을 공부하고 세계적인 건축가 I. M. 페이 사무실에서 활동한 현대적 감각의 소유자였다.

한국어보다 영어와 일본어에 더 익숙했던 그는 나와도 영어로만 대화했다. 당시에는 단지 업무의 일부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태평양을 건너기 전 내가 받은 특별한 예비훈련이었다.

그러나 어떤 준비도 이민이 주는 깊은 단절감까지 대비시켜 주지는 못했다.

LA에 도착했을 때 영어는 언어가 아니라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졌다. 강

의실에서 교수의 말은 알아들을 수 없는 소음처럼 들렸고, 토론 시간은 공포의 연속이었다. 그나마 나를 버티게 해준 것은 건축이라는 학문의 보편적 언어 덕분이었다.

건축은 시각적 모델과 도면으로 말한다. 언어가 부족해도 보여줄 수만

날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낸 최순달 박사과 경제부총리를 지낸 사공일 박사 같은 선배들도 잇을 수 없는 분들이다.

우리는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했고, 결혼한 학생들의 작은 아파트에 모여 허름한 식사를 나누었다. 낯선 땅에서

내년이면 미국 땅을 밟은 지 60년되는 해 UCLA 캠퍼스에서 손녀의 졸업식 지켜보며 두려움·희망 뒤섞였던 유학생 시절 떠올라 꿈꾸던 건축가는 못됐지만 사업·가족 일귀

있다면 소통할 수 있었다. 하지만 디자인 철학을 말로 설명하고 방어해야 하는 세미나는 늘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문화적 충격도 만만치 않았다.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우체국에서 나이 지긋한 직원을 향해 예의를 담아 "Sir"라고 불렀다. 한국에서는 당연한 예의 표현이었다. 그런데 그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난 당신 상사가 아니오." 순간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한국적 위계문화 속에서 자란 내게 미국의 평등주의와 개인주의는 낯설고도 어려운 세계였다. 사소한 한마디가 문화의 차이를 뼈저리게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며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졸업 후 나는 LA에 정착했다. 웨스트 LA, 카슨, 그리고 지금의 투정가까지 여러 차례 이사를 했지만 한 번도 LA를 떠난 적은 없다. 카운티 정부에서 일했고, 민간 건축회사로 옮겨지며, 마침내 나만의 건축사무소를 열었다.

돌이켜보면 아쉬움도 적지 않다. 나는 젊은 시절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를 동경했다. 그의 대표작인 '낙수장(Fallingwater)'과 시카고 근교의 프레리 하우스들은 자연과 건축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예술 작품이었다. 나 역시 그런 건축을 꿈꿨다.

깨닫게 해주었다.

그 시절 나를 지탱해 준 것은 동료 유학생들이었다. UCLA 건축대학원이 아직 완전히 자리를 잡기 전, 나는 도시 설계 석사과정으로 시작해 건축 프로그램으로 옮겨갔고, 1969년 두 번째 졸업생이 되었다. 학업은 고됐지만 한국인 유학생 공동체는 가족과 같았다.

김운해, 이병우, 김선기 동문은 형제나 다름없는 존재였다. 또한 훗

그러나 이민자 건축가의 현실은 이상과 달랐다. 막대한 자본도, 미국 사회에서 널리 알려진 이름도 없었다. 독립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일은 늘 힘겨운 오르막길이었다. 주류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도 분명 존재했다. 내성적인 성격 탓에 주류사회의 부유한 고객들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는 일도 쉽지 않았다.

결국 나는 혁신적인 건축가라기보다 다른 이들의 설계를 현실로 구현하는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았다. 나는 건물의 뼈대를 세웠고, 때로는 다른 이들이 그 안에 영혼을 불어넣었다.

한때는 그것이 못내 아쉬웠다. 그러나 UCLA 졸업식장에서 손녀가 무대를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내가 이루지 못한 꿈보다 내가 남긴 유산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내 자녀들과 손주들은 내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겪었던 두려움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영어 때문에 주눅 들지 않고, 문화적 차이 때문에 위축되지 않는다. 미국 사회를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살아간다.

한국의 위상도 완전히 달라졌다. 내 세대가 미국에 왔을 때 한국은 전쟁의 폐허를 막 벗어난 가난한 나라였다. 많은 미국인들은 한국을 단지 '한국전쟁이 일어난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젊은 세대는 한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며 세계 속에서 자신 있게 살아간다.

나는 결국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같은 건축가가 되지는 못했다. 세상을 놀라게 할 '낙수장'도 짓지 못했다.

하지만 로이스 홀과 파월 도서관 사이에서 있던 그날, 나는 내 인생 최고의 작품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건물이 아니었다. 나는 다음 세대가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게를 떠받친 구조물이었다. 두려운 이민 초기의 시간을 견디고, 사업을 일구고, 가족을 지키며 이 땅에 튼튼한 기초를 놓았다.

이제 손녀는 내가 젊은 시절 꿈을 키웠던 같은 캠퍼스에서 학위를 받고 유리천장이 없는 새로운 세상으로 걸어 나간다. 그리고 나는 그녀의 밝고 자유로운 미래 속에서 내가 평생 설계해 온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을 본다. 그 건축물의 이름은 바로 다음 세대다



원고모집

주제: 독자들의 생각과 식견을 넓혀주는 각 분야의 다양한 글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문학, 철학, 역사, 과학, 의학, 생명과 환경, 여행, 취미 등)
 글의 양: 500단어 (글자 수 2,000자) 내외 글, 레터용지 한장 반 이내
 사진: 고화질 프로필 사진
 보내실 곳: contact@snuua.org



지난 6월 20일 열린 뉴잉글랜드 동창회의 창립 30주년 기념 정기 총회와 야유회에는 80여 명의 동문과 가족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뉴잉글랜드 동창회, 30주년 기념 총회 및 야유회 성료

이영인 신임 회장 선출, 학생 7명에 장학금 전달
색소폰 콰르텟 작은 음악회 공연에 뜨거운 박수

뉴잉글랜드 동창회가 지난 6월 20일(토) 보스턴 소재 찰스 강변 크리스천 허터 공원(Christian Herter Park) 야외음악당(RiverStage)에서 정기 총회 겸 야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화창한 날씨에 쾌적한 풍경을 배경으로 이번 행사에는 8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해 반가운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정기 총회에 앞서 열린 이사회에서는 이영인(사대 74) 동문을 차기 회장으로 추천했다. 이영인 동문은 “앞으로 시니어 동문님들이 보다 수월하게 동창회 모임에 참석할 수 있도록 교통편 지원을 비롯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총회에 앞서 진행된 식전 행사에서는 김종환 음대 동문이 이끄는 색소폰 콰르텟(Saxophone Quartet)의 '작은 음악회' 공연이 펼쳐졌다. 특히 이번 공연은 뉴잉글랜드 동창회 창립 30주년과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해 미 전역에서 열리고 있는 '아메리카 250' 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되어 유서 깊은 리버스테이지 무대의 의미를 더했다.

쏟아지는 햇살 속에서도 자리를 지킨 동문들은 열정적인 연주에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냈으며, 공연 후에는 야외음악당 위쪽 그늘진 곳으로 자리를 옮겨 주최 측이 마련한 오찬을 함께 나누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식사 후 동창회의 오랜 전통이자 자부심인 장학금 수여식이 진행됐다. 올해는 총 7명의 전도유망한 장학생이 선발되었으며, 장학금을 출연한 뉴잉글랜드 지역 동문들이 학생들에게 직접 장학증서를 전달해 그 의미를 더했다.

이어 정기 총회에서 이영인 동문의 신임 회장 인준 및 선임이 있었다. 이영인 신임 회장은 취임 소감에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회장이 인사말 말미에 “우리의 만남은!”이라고 선창하자, 참석 동문들이 일제히 “축복이야!”라고 화답하며 행사장 분위기를 한층 더 밝고 활기차게 고조시켰다.

이영인 회장의 임기는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이다. 한편, 임기를 마치는 원덕수 회장(공대 72)은 이임사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동문들의 적극적인 협력 덕분에 무사히 임기를 마칠 수 있었다”며 회원들에게 깊은



김종환 음대 동문이 이끄는 색소폰 콰르텟이 총회에 앞서 동문들을 위해 작은 음악회를 열고 있다.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뉴잉글랜드 동창회 정기 총회는 동문간의 두터운 정을 확인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면서 마무리되었다. 최연장자로 나길진(의대 53) 동문이 참석하여 동문 모임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고, 무거운 텐트를 가져온 원덕수 회장, 텐트를 현장에서 설치한 김수지, 김호림, 임환범, 이희진 동문이 수고를 하였다. 그 외 야외에서 불고기를 구



박영철 정선주 동문이 김종환 학생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왼쪽은 원덕수 회장.

워 동문에 서빙한 동문들, 접수자 등록에 매회 수고하는 김제성 재무 등의 도움으로 모임을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다.

글=정태영(문리대 71 · 편집위원)

프로방스에서 만난 반 고흐에서 남미 6개월 살기까지 그리고 하이킹

세 명의 동문이 들려준 ‘여행이 삶에 준 선물’ 강연

워싱턴 디씨 지부

지난 6월 20일 서울대 워싱턴 디씨 지부가 주최한 특별 강연에는 약 40명의 동문이 참석해 여행이 삶에 주는 의미와 가치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강연은 세 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길 위에서 나를 만나다: 하이킹과 백패킹 이야기’를 주제로, 지난 15년간 국내외 산과 길을 걸으며 경험한 하이킹과 백패킹을 통해 ‘비움과 채움’, 그리고 자연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과 자유의 의미를 공유했다. - 한정민 (농가정 87)

이어진 2부 ‘프로방스에서 만난 빈센트 반 고흐’에서는 남프랑스 여행을 바



서울대 워싱턴 디씨 동문들이 지난 6월 20일 학술팀이 준비한 강연을 들으며 여행이 삶에 주는 의미와 가치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탕으로 빈센트 반 고흐의 삶과 작품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 여행을 통해 역

사와 예술을 더욱 생생하게 이해하고 경험하는 의미를 이야기했다. - 김은

성 (간호75)

3부 ‘살아보는 여행’에서는 과테말라, 멕시코, 콜롬비아 등 남미에서 약 6개월간 스페인어를 배우며 현지인들과 함께 생활했던 경험을 소개했다. 언어와 다양한 취미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며 문화의 일부가 되어가는 과정과, ‘생활하듯 여행하는’ 방식이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한 경험을 참석자들과 나눴다. -박성희 (환경원 20)

이번 행사는 여행을 단순한 관광이 아닌 자신을 성장시키고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과정으로 바라보는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참석한 동문들에게 큰 공감과 영감을 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글= 김한나(정책학과 20)

160여 동문·가족 하나 돼 “시카고 동창회, 짬이야~”



지난 6월 13일 버세 우즈 사우스 공원에서 열린 시카고 동창회 야유회에는 동문과 가족 160여 명이 참석해 최근 10년래 가장 많은 참석 인원을 자랑했다. 동문들이 함께 모여 기념사진을 찍으며 화합을 다지고 있다.

10년래 최다 참여 ... 폐창과 율동으로 시카고 공원 ‘들썩’

시카고 동창회(회장 이동균)가 지난 6월 13일, 롤링 메도우스(Rolling Meadows) 소재 '버세 우즈 사우스/네드 브라운 미도우 #4(Busse Woods South / Ned Brown Meadow #4)' 공원에서 동문 및 가족들의 뜨거운 성원 속에 2026년 정기 야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화창하고 선선한 80도(° F) 안팎의 환상적인 여름 날씨 속에서 진행된 이번 야유회에는 시카고 로컬 지역 동문뿐만 아니라 위스콘신 등 인근 주, 그리고 멀리 한국 서울에서 방문한 동문까지 총 16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돈독한 정을 나누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최근 10년 이래 가장 많은 동문이 참여한 대규모 행사로 기록되어 시카고 동창회의 끈끈한 결속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 보이지 않는 손길로 준비된 감동의 시작

행사 당일 아침, 이동균 회장(공대 75)과 윤봉수 차기 회장(간호대 69)은 이른 아침부터 행사장인 공원에 도착해 피크닉 테이블을 정성껏 청소했다. 이어 핑크색과 푸른색의 화사한 테이블 덮개를 씌우며, 속속 도착하는 실행 임원들과 함께 동문들을 맞이할 완벽한 준비를 마쳤다.

보통 110명 안팎이 참여하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사전 등록 인원만 146명에 달해 좌석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동문들의 헌신적인 협조가 빛을 발했다. 김훈태 골프 간사(사회대 84)는 출석하는 교회로부터 40개의 의자와 5개의 대형 테이블을 직접 공수해 왔고, 황찬주 부회장(인문대 84)은 관악클럽에서 구입한 캐노피 텐트를 설치해 동문들이 따가운 햇살을 피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또한, 매년 음향 시스템을 책임져 온 김호범 동문(상대 69)은 올해도 어김없이 무거운 전문 음향 장비를 지원해 주었으며, 소진문 동문(치대 58)은 동문들의 생생한 표정과 아름다운 추억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온종일 분주히 움직였다.

■ 율동으로 부른 교가, 떠난 선배 향한 묵념

김훈태 골프 간사의 세련되고 매끄러운 사회로 본격적인 공식 행사의 막이 올랐다. 본격적인 순서에 앞서 황찬주 부회장은 동문들에게 양해를 구한 뒤, 기존의 엄숙한 틀에서 벗어나 온몸으로 활력을 나누는 '율동을 곁한 새로운 스타일의 교가 제창'을 이끌어내며 모임의 분위기를 단숨에 화기애애하게 돋웠다.

즐거움 축제 속에서도 마음 한편을 숙연하게 하는 의미 있는 시간도 마련되었다. 올해 아쉽게 세상을 떠난 5분의 선배님들을 기리는 묵념의 시간이 이어지자, 모든 동문은 경건한 마음으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동문 간의 끈끈한 유대감을 다시금 되새겼다.

이동균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10년래 가장 많은, 그리고 예상보다 훨씬 많은 동문과 가족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가슴이 벅차다"라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몹시 기쁘고, 오늘 하루 안전하고 마음껏 웃고 즐기는 유쾌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아울러 행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고생해 준 임원진과 동문 가족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참여와 성원을 당부했다.

■ 일식 벤도의 색다른 미식과 단체 사진 촬영

금강산도 식후경인 만큼, 환영사 이후에는 정성스럽게 준비된 고급 일식 도시락(Bento)과 다채로운 후식이 제공되었다. 깔끔하고 정갈한 일식 도시락은 참석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비록 일부 동문들 사이에서는



야유회의 단골 메뉴인 '한국식 불고기와 김치'가 생각난다는 애정 어린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왔으나, 화창한 야외에서 나누는 도시락과 담소는 그 자체로 꿀맛 같은 행복을 선사했다. 식사를 마친 후 오후 1시 15분경에는 모든 참석자가 한자리에 모여 푸른 대자연을 배경으로 환한 미소와 함께 단체 사진을 촬영하며 2026년의 소중한 순간을 박제했다.

■ 가창력 대폭발 여흥과 빙고 게임 해프닝

이어진 2부 여흥 시간은 이번 야유회의 하이라이트였다. 황찬주 여흥 간사는 대한민국을 휩쓴 메가 히트 세미 트로트 곡인 “짬이야”를 활용하여, 행사장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황 간사는 동문들을 여성 파트, 남성 파트, 그리고 혼성 파트로 나누어 폐창과 율동을 유도하는 흥미진진한 가창 세션을 이끌었다. 동문들은 저마다 숨겨둔 보컬 실력을 뽐내며 어김없이 끼를 발산했다.

여흥의 열기는 김훈태 동문이 진행한 빙고 게임으로 이어졌다. 임원진은 모든 동문이 양손 무겁게 선물을 들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어느 해보다 푸짐하고 알찬 상품을 준비했다. 게임 도중 빙고판에 표시할 연필이 든 박스를 찾지 못해 "나무젓가락으로 뚫어서 표시해 주시라"고 안내하는 유쾌한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상품 꾸러미 사이에 숨겨져 있던 연필 박스를 발견하면서 현장은 웃음바다가 되었다. 결국 모든 동문이 골고루 행운의 선물을 나누어 가지며 훈훈하게 게임이 마무리되었다.

■ 동문들의 품격으로 완성된 아름다운 마무리

모든 공식 순서가 끝난 후, 서울대인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품격이 다시 한번 빛났다. 선후배 할 것 없이 모든 동문이 자발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행사장 주변 청소와 정리 정돈에 동참한 것이다. 머뭇 자리를 완벽하게 지우고 깔끔하게 마무리한 동문들은 아쉬운 작별의 악수와 함께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귀가길에 올랐다.

이번 2026년 시카고 서울대 동창회 야유회는 이동균 회장과 집행부 임원들의 헌신적인 기획과 봉사, 그리고 동문들의 뜨거운 참여가 어우러져 만들어 낸 최고의 축제였다. "준비해 주신 분들의 노고와 따뜻한 정을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이라는 한 노선배의 말처럼, 이번 야유회는 시카고 동문 모두의 가슴속에 오래도록 기억될 아름다운 추억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되었다.

글= 이동균(공대 75) · 사진= 소진문(치대 58)



(왼쪽부터) 김영석 현 회장이 제46대, 47대 회장을 역임한 심회진 동문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필리 한화조선소의 이종무 동문이 '필리 한화 조선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기조발표를 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는 푸짐한 선물 꾸러미가 준비돼 참석자 전원에게 새로 제작한 동문 주소록과 서울대 로고가 새겨진 기념품을 선물했다.

필라델피아 동창회, '훈훈하고 활기차게' 총회 마무리

동문·가족 56명 참석
김영석 회장 연임 가결

서울대학교 필라델피아 지역 동창회(회장 김영석)가 지난 6월 13일 토요일, KORI 레스토랑에서 동문 및 가족 등 약 5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점심 식사를 시작으로 신입 회원 환영 및 오랜만에 참석한 동문 소개 순서로 진행되었다.

본 총회에서는 현 회장인 김영석(음대 74) 동문의 연임이 가결되어, 향후 1년간 필라 동창회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어진 시상 순서에서는 동창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제46대, 47대 회장 심회진 동문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공로패를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되었다. 아울러 공지 시간에는 김영석 회장과 신의석 동문이 제35차 서울대 미주동창회 평의회에서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장 공로패를 수상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져, 미주 동문 사회를 위한 두 동문의 노고에



필라델피아 동문들이 이날 열린 총회에서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며 단합을 다졌다.

축하를 나누며 훈훈함을 더했다. 초청 강연에서는 필리 한화조선소의 이종무(공대 95) 동문이 게스트 스피커로 나서 '필리 한화 조선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해당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으로 참석한 동문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경품 추첨 순서에서는 이문환 동문이 기증한 전기밥솥 추첨이 진행되었으며, 동창회 측은 새로 제작한 동문 주소록과 서울대학교 로고가 새겨진 기념품을 참석자 전원에게 전달하며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김영석 회장은 "총회를 준비해 준 임

원진과 늘 든든하게 지원해 주시는 사모님들, 그리고 뜻깊은 강연과 경품을 후원해 주신 이종무, 손재욱, 이문환 동문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특히 바쁜 일정 중에도 연로하신 선배님들부터 신입 회원까지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소프라노 김성지(음대 92), 30주년 기념 '감사와 나눔의 음악회'

찬양, 오페라 아리아, 가곡, 국악 협연까지
8,030달러 모금액, 자선 사역 후원금으로

지난 6월 14일, 김성지(음대 92) 교수가 미국 음악 활동 30주년을 기념하는 독창회 겸 베네핏(Benefit)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쳤다.

『감사와 나눔의 음악회』라는 타이틀로 열린 이번 연주회는 모교 졸업 후 걸어온 30년 음악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인도네시아 청소년들을 후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30년간 김 교수의 음악 인생을 함께해온 오페라 아리

아와 뮤지컬 작품들,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담은 한국 가곡 및 국악기와와의 협연, 그리고 긴 여정 가운데 언제나 인도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풍성하게 구성되어 청중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특히 이번 음악회는 인도네시아에서 성매매 위협에 노출된 여자 청소년들을 위해 'JUST GOALS' 유스 축구팀을 이끌며 헌신하고 있는 Peter Kim 선교사의 사역을 후원하는 자리여서 그 의미

를 더했다. 이번 콘서트를 통해 총 8,030.50 달러의 귀한 후원금이 모금되었으며, 이는 Peter Kim 선교사의 사역지에 전액 전달될 예정이다. 특별히 서울대학교 미주 동창회 황효숙 회장이 1,000달러를 후원해 준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김성지 교수는 "지난 30년의 음악 여정을 동문들과 나눌 수 있어 큰 기쁨이었고,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전해질 수 있게 되어 뜻깊다"며, "후원과 응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앞으로도 더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다.

글=김영석(음대 74) 필라 동창회장



(위 사진) 미국 음악 활동 30주년 기념 베네핏 콘서트를 하고 있는 김성지 동문.

(왼쪽 사진) 필라델피아 지부의 많은 동문들이 참석해 김성지 동문의 30주년 기념 독창회를 축하하며 나눔의 뜻을 함께했다



(왼쪽부터) 신희선 동문의 아들 주안 군은 이날 모임의 최연소 참가자였다. 샌디에고 동문들이 하이킹 코스의 정상에 모여 단체 기념사진을 찍었다. 진돗개 보리도 넘치는 호기심으로 동문들을 미소짓게 했다.

주안이도 진돗개도 함께한 동문들의 즐거운 토요일 하이킹

샌디에고 지부

구름이 조금 있어 야외활동 하기는 더욱 좋았던 지난 6월 6일 토요일, 아침부터 동문과 가족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커피와 맛있는 베이글과 함

께 이야기 꽃이 피었습니다. 오늘 행사에서 유난히 눈에 들어왔던 참여자는 진돗개 보리였습니다. 5개월 된 이 진돗개는 넘치는 호기심과 체력으로 모두를 미소짓게 만들었습니다. 11시 무렵 시작한 하이킹 코스 중 출렁다리가 포함이 되어있었습니다. 하이

킹 코스의 정상이었던 Hack's Nest에 모든 동문들이 모여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이킹을 마치고 가제보로 돌아와서 맛있는 식사 시간을 가졌습니다. 불고기, 나물반찬, 오징어부침, 피자 등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누구나 즐길 수 있

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최연소 참가자는 신희선(공대 97) 동문의 가족 신주안 군이었습니다. 아쉽지만 단체사진과 함께 행사를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을 동문회 행사에서 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글=정윤제(자연대19)

Microsoft보안 연구 부사장 초청, AI의 미래와 기회에 대해 듣고 묻다

조지아 지부

김태수 교수 특별 강연

지난 6월 6일, 서울대학교 조지아 지부 주최로 김태수 조지아텍 교수 초청 특별강연 「AI, 미래를 설계하는 새로운 기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김태수 교수는 KAIST에서 컴퓨터공학 학사 학위를, MIT에서 컴퓨터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조지아텍 컴퓨터과학부 교수이자 Microsoft 보안 연구 부문 부사장(Vice President of Security Research)으로 재직하고 있다.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보안 분야의



서울대 조지아 지부 김인구 회장(맨 오른쪽)이 강연자인 김태수 교수(가운데), 조지아텍 교수인 장승순 부회장과 함께했다.

세계적 권위자로서 사이버 보안과 AI 보안 분야의 연구를 선도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특임교수로도 활동 중이다.

이날 행사는 김 교수의 프레젠테이션 강연과 패널 형식의 질의응답, 그리고 참석자들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을 포함해 약 세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김 교수는 강연에서 AI 기술의 발전과 미래 사회 변화에 대한 통찰을 전했으며, 강연 후에는 조지아텍 교수이자 서울대 조지아 지부 부회장인 장승순 교수의 진행으로 패널 대화와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는 많은 동문과 비동문이 참석해 빠르게 변화하는 AI 시대의 흐름과 미래 사회의 다양한 가능성을 깊이 있고 흥미롭게 접할 수 있었다. 또한 기술과 인간의 역할이 앞으로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발전해 나갈지 함께 고민해 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글=최화진(음대 85 · 편집위원)

태평양 연안 바다코끼리 번식지로 하이킹 ... 트레일엔 사슴까지

북가주 지부

북가주 동문회의 하이킹 모임이 지난 6월 20일 Año Nuevo State Park에서 모임을 가졌다. 평소 매주 토요일 가까운 곳에 하이킹을 다니는데 이번에 여름을 맞아 일상을 벗어나 조금 먼 곳에 가게 되었다. Año Nuevo(스페인어로 New Year)는 미국 태평양 연안에 네 군데만 있는 바다코끼리(Elephant Seal)의 번식지 중 하나로 알려졌으며 교통이 상대적으로 불편해서 북가주에 오래 사신 동문들 중에도 처음 가 보신 분이 여럿이었다. 동문들이 마련한 점심 식사와, 와인 반주(盤酒)가 아닌 하모니카와 기타 반주(伴奏)를 곁들인 간단한 오락 시간 후에 왕복 3마일 거리의 바다코끼리 번식지로 걸음을 옮겼다. 중간에 발이 푹푹 빠지는 모래언덕이 있지만, 이상우 동문의 수고로 공원에서 운영하는 무료



태평양 연안 바다코끼리 번식지 Año Nuevo로 하이킹을 간 북가주 동문들.

Park Van 서비스를 제공받아 각자 필요에 따라 편하게 혹은 상쾌한 걸음을 옮겼다. 차내에서는 도슨트들의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고, 하이킹 트레일에는 지적에 사슴과 펠리컨들이 있어 가히 육해공을 망라한 동물들을 관찰할 수 있었다. 바다코끼리는 수컷이 5,000 파운드에 달하는 거구를 자랑하며, 물개처럼 수컷 하나가 번식철에 암컷을 독차지하는데

겨울철 번식 이후에는 각자 갈 길을 가는(수컷은 알래스카, 암컷은 하와이로, 새끼들은 각자도생) 묘한 생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70년대 한국의 가족계획 슬로건을 만든 윤성희 동문이 이 이야기를 듣고 ".../암수 한쌍이/126년 동안 지금은/후손이 250,000 마리/윤박사가 둘만 남아 잘 기르라고 그렇게 부탁했건만/..."이라고 시를 읊기도 했다. 해변에서 코를 쳐들고 크르르거리는 수컷들 옆에는 갈매기들에게 물어뜯기는 죽은 새끼가 비정한 약육강식의 단면을, 반대편 산에 보이는 2020년 산불의 상흔이 자연계의 순환과 인간의 미약함을 일깨워 준다. Año Nuevo를 뒤로 하고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는 차안에서는 카풀을 한 덕분에 알래스카 킹 크랩 잡이에서 중국 심천의 90년대 모습, 히말라야에서 파타고니아까지 섭렵한 동문들의 다양한 경험담과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아쉬운 마무리를 하였다. 글=최승희(사회대 81)

반가운 얼굴들, 함께라서 더 빛난 순간들



(왼쪽부터) 축하 만찬에서 건배사를 제의하는 이준식 서울대 총동창회장. 동문들이 올해 타계한 미주동창회 박윤수 초대회장, 강수상 2대 회장, 이용락 6대 회장, 오흥조 7대 회장을 기리는 추모 묵념을 하고 있다. 신응남, 이성숙, 손재옥 동문이 약속이라도 한 듯 '백바지'를 맞춰 입고 물 오브 아메리카를 찾았다.



(왼쪽부터) 1990년대에서 2000년대 학번의 젊은 동문들이 함께 기념 사진을 찍었다. 올해 평의원회는 젊은 동문들의 참여가 눈에 띄게 늘었다. 바이올리니스트 이경선 교수가 이소정 교수의 피아노 반주로 생상스의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를 연주하고 있다. 이경선 교수는 이날 이준식 총동창회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김한기곡 '고향의 봄'도 연주했다.



(왼쪽부터) '가야금으로 만나는 한국음악의 현재'를 주제로 가야금 연주와 세미나를 한 이수진(음대 96) 박사의 연주 모습을 김권식(공대 61) 동문이 열심히 카메라에 담고 있다. 북가주 동창회장을 한 최경선 동문 부부를 중심으로 북가주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왼쪽부터) 시카고 동문들이 황호숙 회장, 이준식 총동창회장과 함께 기념 사진을 찍었다. 시카고에서는 무려 11명의 동문과 배우자가 평의원회를 찾았는데 7시간 내의 거리라 대부분 차를 운전해서 왔다. 필라델피아 동문들도 함께 모였다. 김영석 지부 회장과 손재옥 전 미주동창회장 등 모두 8명이 참가해 역대 최고 참가 기록을 세웠다

웃음과 추억을 남긴 아름다운 호수 크루즈



평의원회 마지막 날인 28일, 황효숙 미주동창회장의 초대로 56명의 동문과 배우자가 미네통카 호수(Lake Minnetonka) 크루즈를 즐겼다. 오찬을 결정한 크루즈 위에서 동문들은 삼삼오오 모여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눴고, 호숫가에 자리한 그림 같은 대저택들을 구경하며 여유로운 한때를 보냈다. 특히 미네소타 지부 변우진(인문대 81) 동문의 재미있는 설명으로 미네통카 호수의 정취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던 이번 크루즈는, 반가운 동문들과 함께라서 더욱 빛났던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았다. 크루즈를 끝낸 동문들이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선착장에서 마지막 기념 촬영을 했다.



김량국 동문이 전하는 기업넷 6월 모임

시가 바꾸는 핀테크와 소프트웨어 개발, 현황과 미래를 논하다

지난 6월, 서울대 미주동창회 창업네트워크(기업넷)의 정기 모임이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이번 모임에서는 핀테크 산업과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 AI가 만들어 내고 있는 변화가 소개되어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모임은 평소와 같이 회원들의 근황 공유로 시작됐다. 각 회원들은 사업 진행 상황과 새로운 도전, 그리고 최근의 성과를 나누며 서로를 격려했다.

첫 번째 발표는 김정상 동문(경제 91)이 맡았다. 김 동문은 최근 참가한 "Fintech Week SF 2026"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핀테크 산업의 최신 흐름을 소개했다.

김 동문은 결제 경험의 주도권이 전통 은행에서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임베디드 파이낸스, 브라질의 Pix와 미국의 FedNow로 대표되는 실시간 결제 인프라의 확산, JPMorgan 등 대형 금융기관이 주

도하는 에이전틱 AI 도입, 그리고 스테이블코인의 기업 결제 인프라 편입을 주요 변화로 꼽았다.

특히 기존 레거시 시스템과 새로운 기술을 연결하는 문제가 업계의 공통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B2B 결제와 AI, 디지털 자산이 현재 핀테크 산업의 핵심 분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동문은 현재 AI 기반 모빌리티 금융 플랫폼을 개발하는 한편, Ross EMBA 과정(Class of 2028)도 병행하고 있다.

두 번째 발표는 김량국 동문(사대 92)이 맡았다. Oak Bioinformatics LLC와 Bukdu Group LLC를 운영하고 있는 김 동문은 "AI를 이용한 소프트웨어 개발의 최신 동향과 앞으로의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동문은 소프트웨어 개발의 역사를 간략히 짚으며, 2017년 트랜스포머 모델의 등장 이후 Copilot,



이날 기업넷에서 핀테크 산업의 최신 흐름을 소개한 김정상(경제학과 91) 동문. 김 동문은 6월26일 열린 미주동창회 제 35차 평의회에도 참석했다.

ChatGPT, Cursor를 거쳐 Claude Code에 이르기까지 AI가 단순한 코딩 보조 도구에서 자율 실행형 에이전트로 빠르게 발전해 온 과정을 설명했다.

특히 사람이 직접 모든 코드를 작성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AI 에이전트가 프롬프트를 바탕으로 기

획과 개발, 테스트, 검토까지 수행하는 방향으로 개발 패러다임이 이동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동문은 "이제는 프로그래밍 실력보다 도메인 지식의 중요성이 커졌고, 아이디어가 곧 실행력으로 이어지는 시대가 됐다"고 설명했다.

Bukdu Group은 AI를 활용한 신속한 소프트웨어 개발과 프로토타입의 상용화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AI가 개발자의 역할과 소프트웨어 산업의 구조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번 모임은 금융과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서로 다른 분야에서 AI가 만들어 내는 변화의 흐름을 함께 조망할 수 있는 자리였다. 기업넷의 다음 정기 모임은 7월에 예정되어 있으며, 창업과 투자에 관심 있는 동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AI와 노동의 종말, 이번에는 정말 다를까?



송명국(철학과 90)
칼스테이트 롱비치 마케팅학 교수

2025년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챗GPT가 출시되었던 2022년 11월 이전까지 소프트웨어 개발자 고용 인원은 대부분 연령대에서 꾸준히 증가했으나, 챗GPT가 공개된 이후 22세에서 30세 사이의 젊은 개발자 수가 뚜렷하게 감소하기 시작했다. 고객 서비스, 회계, 법률 지원 분야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는 AI로 인한 자동화가 특히 초급 노동자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AI 에이전트의 발전으로 인해 점점 자율적으로 변하고 있는 AI는 이제 코드 생성뿐 아니라 테스트, 수정, 배포까지 소프트웨어 개발의 전과정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AI가 곧 인간 노동의 상당 부분을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를 가속시키고 있다. 2025년 앤쓰로픽 CEO는 AI로 인해 초급 일자리가 50%까지 감소하고, 실업률이 10~20%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론 머스크 역시 AI로 인해 일자리가 사라지고 노동이 필요 없는 사회가 도래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풍요의 시대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인간의 가치와 존재 이유를 찾아

야 하는 정신적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계가 노동자를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는 인류 문명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된 주제이다. 1930년 케인스는 노동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이 단기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속도보다 빠르게 진화하는 현상을 "기술적 실업(technological unemployment)"이라고 표현했고, 1920~1940년대의 신문 기사에는 "기계가 사람을 대체할 것인

이는 AI가 노동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 수요의 지형을 재편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AI로 인한 생산성의 증가 역시 인력 수요에 대한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024년 오픈AI CEO는 AI 에이전트가 "1인 유니콘" 기업들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이러한 초기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다.

위고비, 썬바운드와 같은 GLP-1 체중 감량 약품을 판매하는 메드

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경제는 정적인 시스템이 아니다. 한 영역에서의 효율성 증가는 항상 다른 영역에서의 수요를 창출하는데, 이는 인간의 욕망이 사실상 무한하기 때문이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새로운 욕구와 문제,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이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은 19세기 경제학자 윌리엄 제번스가 제시한 "제번스의 역설"에서 잘 드러난다. 그는 산업혁명 당시 증기기관으로 인한 효율성 향상에 불구하고, 전체적인 석탄 사용량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는 생산성 증가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저렴해진 결과 이전에는 석탄을 쓸 엄두를 내지 못했던 철강, 직물, 철도 등 수많은 제조업과 운송업 분야에서 증기기관을 폭발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현재 AI 시스템의 한계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벤치마크 점수와 인상적인 데모들은 AI가 대부분의 인간 노동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단계에 가까워졌다는 환상을 만든다.

이는 AI 개발 회사와 미디어가 대중의 이목을 끌기 위해 AI 능력을 과장한 결과이기도 하다. 최근 스케일AI는 단순화된 벤치마크 대신 코딩, 디자인, 애니메이션, 데이터 분석 같은 실제 프리랜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AI를 평가한 "원격노동지수(Remote Labor Index)"를 발표했는데, 고객이 만족할 만한 AI 산출물은 전체 프로젝트의 약 2.5% 수준이었다.

즉, AI는 범위가 명확하고 비교적 단순한 작업에서는 인상적인 성능을 보이지만, 모호한 상황을 해석하거나, 복잡한 추론이 필요한 현실 상황에서는 여전히 상당한 한계

“인쇄술에서 인터넷까지, 인류는 언제나 기술을 통해 한계를 극복하고 진보해 왔다
AI 또한 역사적 흐름의 연장선에 있으며
인간 잠재력의 지평 넓히는 기술이 될 것”

가”, “기계에 잡아먹힌 인간” 등 오늘날 AI에 대한 헤드라인과 놀라움 정도로 유사한 경고들이 등장한다.

그러나 AI가 인간의 노동과 직업을 광범위하게 대체할 것이라는 주장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

최근 4.3%라는 완전고용 수준의 미국 실업률 데이터가 보여 주듯이 AI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거시 경제 수준의 대량 실업이 발생한 적은 없다. AI는 오히려 다양한 영역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데, 링크드인 데이터에 따르면 AI 통합 전문가, 데이터센터 기술자, 데이터 주석 작업자 등 AI 관련 기술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자신을 AI를 활용한 크리에이터나 창업자로 소개하는 프로필도 크게 늘어났다.

비(Medvi)는 2024년에 두 명의 인력과 AI 에이전트에 기반으로 출범하여, 2026년에는 18억 달러에 가까운 매출을 이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 인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는 메드비는 AI 에이전트, 광고제작, 고객서비스 등을 위해 오픈AI, 앤쓰로픽, 일레븐랩스 등의 AI 솔루션을 비롯하여, 법률 회사, 회계 법인, 미디어 에이전시 등 광범위한 외부 서비스 생태계에 의존하고 있다. 나아가 메드비는 케어밸리데이트라는, 의사, 약국, 물류 회사와 약품 판매 기업들을 연결해 주는 원격 의료 플랫폼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러한 플랫폼 없이는 사업을 시작할 수조차 없었다.

즉, 메드비와 같은 소수 정예 기업의 성장이 곧 노동 수요의 소멸을 의미하



나의 서재 | 박상호

뿌리를 내리지 않는 자유 영혼, 줘파 라히리를 읽고

줘파 라히리(Jhumpa Lahiri)는 32살 젊은 나이에 펴낸 첫 단편집, 《축복받은 집》(1999)으로 오헨리 문학상과 펜/헤밍웨이 문학상, 풀리처상을 한 손에 거머쥐게 된다. 그녀는 1967년 영국에서 태어났지만, 그녀의 부모는 인도 벵골 출신으로, 영국을 거쳐 미국의 로드아일랜드에 정착하게 된다. 그녀를 소개하는 이유는 그녀가 우리들의 아이들처럼, 어디에도 온전히 뿌리를 내릴 수도, 속할 수도 없는 그늘린 피부의 이민 2세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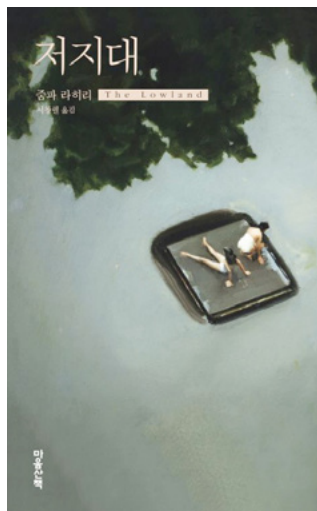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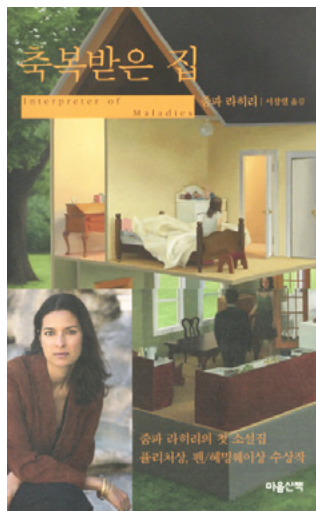
내 서재에는 그녀의 소설 《축복받은 집》, 《그저 좋은 사람》(2008), 《저지대》(2013)가 있다. 나는 그녀의 단편을 선호하는 편이지만, 여기서 그녀의 소설을 이야기하려면 어쩔 수 없이 《저지대》의 책장을 펼쳐야 한다.

사실 2015년에 그녀는 《이 작은 책은 언제나 나보다 크다》라는 산문집을 출간했다. 이 책은 놀랍게도 영문도 인도어도 아닌, 새로운 언어로 그녀가 습득한 이탈리아어로 펴낸 책이다. 그녀는 우연히 여행한 피렌체 거리에서 들었던 이탈리아 사람들의 대화에 매료되어, 포켓사전을 들고 다니며 이탈리아어를 주워 모으기 시작한다. 그리고 2012년 가족과 함께 로마로 이주한다. 이러한 선택을 그녀는 아래 이야기로 표현한다.

“창작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안정감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그녀는 제3의 언어를 선택함으로써, 벵골어의 뿌리를 가진 채 영어와 씩씩하던 부모를 이해하게 된다. 그와 동시에 벵골어와 영어의 틈새에 허덕이던 그녀에게, 이탈리아어는 일종의 도전이자 안식처가 된 것이다. 이제 그녀는 세 개의 언어 문화가 넘나드는 넓은 바다 위에서 수영(游泳)을 즐기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녀의 소리도 움직임도 없이 가라앉은 문체를 좋아한다. 그녀의 처녀작 《축복받은 집》을 읽다 보면, 도저히 그녀가 30대 초반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 그 이후의 모든 작품은 언급할 필요도 없다. 그녀가 보이는 서늘함은,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이민 2세대의 디아스포라(Diaspora)적 슬픔이 근본을 이룰 것이다.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이민이거



줘파 라히리의 첫 소설 집 《축복받은 집》과 특유의 정밀한 심리 묘사와 서사가 4대에 걸친 가족의 비극으로 확장된 장편소설 《저지대》의 표지.

벵골의 뿌리를 갖고 영어에서 이탈리아어로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의 무게와 태생적 슬픔

나, 난민이나 탈출의 결과로 초래되는 수동적 이민이거나, 조상이 묻힌 땅을 떠난 모든 이들은 고향 쪽 하늘을 바라보며 한(恨)을 키우게 된다. 이러한 부모로부터의 태생적 슬픔은 2세대에게 ‘다중(多重)의 정체성’과 ‘경계인의 머뭇거림’을 잉태시키고 만다.

그녀의 정신적 고향인 인도의 벵골 지역 역시 역사적 아픔을 딛고 있는 곳이다. 1960년대 세계적으로 혁명의 기운이 휩쓸고 있을 때, 이 지역에서 제일 먼저 공산주의 통일전선 혁명이 일어나기도 했다. 소설 《저지대》의 배경 또한 영국으로부터의 분리 독립 이후, 힌두교도의 정착촌이 되었던 서벵골의 툴리건지를 배경으로 한다.

벵골(Bengal)은 인도에서 카슈미르(Kashmir) 지역과 더불어 가장 역사적으로 불행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 벵골은 힌두교의 서벵골과 방글라데시로 편입된 이슬람교의 동벵골로 나뉜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에서 오는 사상적 대립과 힌두교와 이슬람교 사이의 종교적 대립, 이 두 가지 무서운 갈등이 벵골과 인도 전체를 지배했던 것이다.

소설 《저지대》는 인도 서벵골에서 태어난 수바시와 우다얀 형제의 이야기이다. 학문과 이성을 통해 사회를 인식하는 형 수바시, 현실과 실천을 통해 사회를 바라보는 동생 우다얀,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거미줄 같은 가족 이야기다. 학생 투쟁 운동

에 가담한 동생 우다얀은 경찰에 의해 사살되고, 우다얀의 아내인 가우리는 임신한 상태다. 수바시는 동생의 여자 가우리와 결혼하여 그녀와 함께 미국으로 향한다. 이야기는 가우리의 딸 벨라, 벨라의 딸 메그나의 삶까지 나아가는 4대에 걸친 지난한 이야기이다.

부레옥잠과 움직이는 모든 것이 모이는 곳, 과거와 현재, 미래마저도 시간의 초침을 멈추어 가라앉은 곳, 그곳이 툴리건지의 저지대이다. 죽은 동생 우다얀이 영원히 숨 쉬는 곳이다. 누구의 의지와도 상관없이 살아가야만 하는 모든 존재들이 짊어져야 할 인연(因緣)이 화석화된 곳이다.

작가의 생각과 문체를 끌고 나가는 주된 작품 속 인물은 조용한 수바시이다. 그의 삶은 가족과 죽은 동생 우다얀, 그리고 동생의 여자였던 가우리를 위해 나아가는 것이다. 아무리 앞으로 발을 내디뎠어도 거리는 줄어들지 않는다. 작가의 섬세하면서도 무게 있고, 조용하면서도 울림이 큰 목소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문학 용어를 꺼내지 않을 수 없다.

첫 번째는 ‘거리 두기’다. 문학적으로 거리를 둔다는 것은 주제와 인물 또는 사건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작가가 종교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모든 것과의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이 용어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로 설

명하는 것이 더 쉽게 이해될 것이다.

너무 가까이 다가서 상처를 입기도 싫고, 너무 멀리 떨어져 관계가 소원해지기도 거부하는 것이다. 멀리서 자신의 적대적인 감정을 숨기며 바라보는 관계의 초기에 재미있는 환상을 보게 된다. 자신을 절대적·객관적 선의 입장으로, 상대방을 단순한 악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시간과 공간의 거리 두기는 서늘한 마술을 불러오게 된다. 악의 불씨가 나로부터도 발견되고, 절대적이 상대적으로 옷을 갈아입으며, 주관과 객관이 뒤섞이게 되는 것이다. 간혹 거리가 사라지고 관계도 증발한다. 변할 수 있는 것은 자신뿐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열기구 기술’이다. ‘떠오르는 데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뭐든지 버려라.’ 이렇게 간단하고 선명한 기술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기술은 체중 조절과도 같이 실제로 행하기엔 절대로 녹록지 않다.

문장에서 일단 불필요한 부사와 연결어를 잘라 버리는 간단한 실천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차츰 냉정하고 무거운 발걸음이 필요하다. 독자보다 먼저 흥분한 자신의 주관적 감정을 탈락시켜야 한다. 성인(聖人)인 양 내뿜은 아포리즘(aphorism)도 멀리해야 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어린 목동과 소의 관계와도 같은 주체의 혼동이 존재한다. 소를 완력으로 끌고 풀밭으로 몰고 가서, 이 풀을 먹고 저 풀을 먹지 말라고 명령할 수 없는 것이다. 약초와 독초는 소가 스스로 안다. 좋은 글은 스스로 나아간다. 하지만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역동적인 소가 달아나거나, 열기구가 지상으로 곤두박질칠 수도 있다. 적당히 소를 잡은 줄에 힘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잠언과도 같이 늘 마음에 담고 있는 두 가지 다짐을 뱉어낼 만큼, 나는 작가 줘파 라히리를 사랑한다. 이 글을 위해 다시 《저지대》를 읽으면서, 가라앉은 모든 것은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슬퍼한다.

***박상호 동문(치대 80)은 본업인 치과의사를 하면서 미주한국일보를 통해 시(2010년)와 소설(2012년)로 등단했다. 지난해 자전적 수필집 《사막 한가운데 책방》을 출간했다.

➡ 를 보이고 있다. AI는 점차로 인간의 영역으로 여겨지는 많은 작업을 수행할 것이고 이에 따라 전문 직업의 역할도 변화할 것이다. AI 시대의 진정한 과제는 AI로 인한 전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일이다. 노동자들을 어떻게 재교육하고 관련 제도를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가, 교육 시스템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불평등의 지나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결실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등의 문제들은 정당한 우려이지만, 이는 인간 노동 자체가 없어질 것이라는 주장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AI는 인간 노동을 대체하는 최종 기술이라기 보다 새로운 직업과 산업을 창출하는 기술로 AI 시대의 진정한 과제는 AI로 인한 전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일일 것이다.

역사가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교훈은 분명하다. 새로운 기술이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면 그 해결책은 곧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주고, 이는 새로운 욕

망으로 이어진다. 인류의 진보는 언제나 기술이라는 도구를 통해 인간의 능력을 확장하는 과정이었다. 인쇄술은 인간의 기억과 지식 공유

한계를, 망원경과 현미경은 시각적 인지 한계를, 전신과 전화는 공간적 소통 한계를, 자동차와 비행기는 물리적 이동 한계를, 컴퓨터는 정보처리 역량을, 인터넷은 정보 접근과 소통 능력을 확장했다.

기술은 지속적으로 인간의 가능성의 경계를 넓혀 왔으며, 그 과정에서 기존의 직업을 변화시키는 동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직업과 산업을 창출해 왔다. AI 역시 이러한 역사적 흐름의 연장선에 있으며 인간 노동을 대체하는 최종 기술이라기 보다 인간 잠재력의 지평을 넓히는 강력한 범용 기술이 될 것이다

“우리는 누구인가” 함께 읽고 성찰하는 즐거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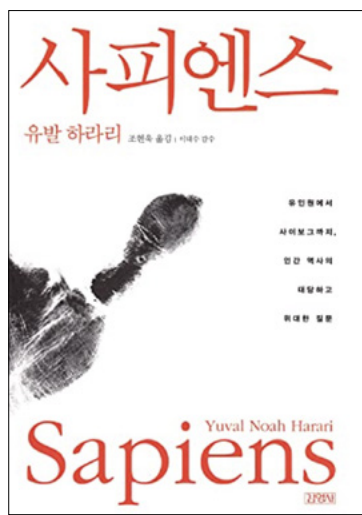
김자성 동문이 이끄는 줌 명상 북클럽,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함께 읽기

남가주에서 정신과 전문의로 활동하는 김자성(의대 79) 동문은 줌으로 하는 명상 북클럽 모임을 이끌고 있다.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서부 시간)에서 9시까지 줌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되는 이 모임은 유발 하라리의 저서 '사피엔스'를 함께 읽고 토론하는 독서 모

임과 20분간의 단체 명상으로 구성돼 있다. 김자성 동문은 “인류의 기원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다루며 인간의 의식과 믿음 체계에 대해 철학적 성찰을 하면서 명상 수련에 관심있는 동문들의 참여를 환영한다”며 모임과 책에 대한 소개 글을 보내왔다.



김자성
(의대 79· 남가주)



“지역 옮기며 살 때마다 주위에 북클럽 활동 제안 매주 목요일 동문 등 20명 줌으로 만나 토론과 명상”

이 생겨 나면서 모임이 지속될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 북클럽을 사랑하게 된 기원은 의예과 시절 기독교 학생회 활동으로 소급된다. 근본주의 교회 출신인 나로서는 현대신학자들이 재해석한 기독교를 접하며 큰 충격과 변화를 경험했고 이후 국내외 비교종교학자들의 저술을 통해 명상전통의 동양종교에도 안목이 열리고 한편으로는 심리학에 대한 관심도 깊어져 이후 전공도 정신과를 택하게 되었다. 이런 배경에서 같이 책을 읽고 토론하는 것이 중요한 취미로 되어갔다. 이후 다른 지역에 살게 될 때 마다 주위의 동료, 친구들을 모아 같이 읽고 토론하는 북클럽 활동을 제안해 운영해 본 경험이 있다.

이 모임은 매주 목요일 저녁 한 시간 반, 줌에서 만나는 모임인데, 지역적으로는 한인 타운뿐 아니라 오렌지 카운티, 북가주, 애리조나, 멀리 동부

나 한국에서도 참가하는 멤버들로 확장되었다.

최근 시작한 '사피엔스' 책에는 유독 관심들이 많아 새로 여남은 명이 합류, 매 모임에 20여명 남짓 참가하는데 지금은 전현직 대학 교수님들도 여러분 계시고 다양한 직업적 배경에 개인적 종교 배경도 불교, 가톨릭, 개신교를 포함 다양하다. 처음엔 구성원이 모두 한인 커뮤니티 중심이었는데 그동안 광고 등으로 지금은 우리 동문들이 절반은 된다.

참가자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궁극적 질문에 열린 마음으로 탐구하는 자세를 가진 분들이라는 점이다. 진행 형식은 매 세션 20~30분 정도 멤버 중 누군가 요약 발표를 하면 40~50분간 자유 토론이 이어지고, 마지막 20분은 단체 명상을 가져 총 1시간 30분이면 끝난다.

다음 날 녹화한 세션 링크를 멤버들께 보내 드리는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공부할 수도 있어 어떤 분들은 주로 녹화본으로 혼자 공부하기도 한다. 현재 이메일 수신 리스트에는 총 60여 명이 있다. 열린 마음으로 삶의 가장 깊은 차원의 탐구에 열려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환영한다.

-문의: 김자성(의대 79) (이메일 jasungkim@hotmail.com 문자 213-210-4429)

이번에 새로 공부하게 된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는 동문 모두 꼭 읽어 봤으면 하는 책이다. 인류의 역사를 큰 시각으로 보는 거시적 스케일이 일단 마음에 들고 중요한 통찰로 이야기기를 엮어가는 진행은 가히 천재적이다. 진부한 느낌이기 쉬운 과거의 나열이 아니라 그 저변을 꿰뚫어 의미를 발견하는 지성, 그래서 더 크고 깊은 진리에 성큼 다가서는 느낌이 들게 하는 명작이다.

몇 대표적인 구절을 인용해 본다. “인공 지능의 시대 우리에게 새로운 이야기가 필요하다... 역사를 연구하는 것은 미래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다... 우리의 현재 상황이 자연스러운 것도 필연적인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다... 미래의 현명한 선택을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 더 잘 파악해야 한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는 인류가 다른 이전의 인간 종들을 능가하게 된 이유로 뒷담화 이론 (gossip theory)을 제기한다. 즉 이야기/신화/허구를 말하는 능력을 강조한다.

“인간만이 이야기 탓에 서로를 살해한다. 인류 역사를 이해하려면 허구적인 이야기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믿느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꿈 안에 갇혀 있다. 하지만 역사를 연구하면 출구가 보일 수 있다... 역사가의 임무는 과거를 기억하는 데 있지 않고 사람들을 과거로부터 해방시키는 데 있다... 인간의 대규모 협력은 신화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신화를 바꾸면 인간의 협력 방식도 바뀔 수 있다.”

실로 오늘을 사는 지성인이려면 우리 자신을 위해, 또 인류의 미래를 위해 우리에게 가장 진실에 가까운 (진), 가장 훌륭한 (선), 가장 아름다운 (미) 이야기/신화가 무엇일지 궁금해하고 모색하는 일은 가장 의미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진리는 나의 빛> 이란 모교의 구호 대로.

이 모임의 출발은 필자가 2019년 여름 엘에어로 이사 오면서 바로 인연이 닿아 가입하게 된 반야사 대면 명상

모임에서부터였다.

곧이어 연관된 책도 같이 읽는 형식을 제안하였고, 또 마침 코비드 시절을 맞아 대면 모임에서 온라인으로 형태가 바뀌면서 필자가 명상/북클럽의 호스트 역할을 맡게 되었고, 새로운 책을 시작할 때마다 커뮤니티 광고 등을 통해 광고해온 덕에 구성원들의 참가 지역도 점점 넓어져 벌써 육년 여째 이어지고 있다.

처음 읽었던 책은 기독교와 불교의 만남에 해당하는 탁났한 스님 저/ 오강남 교수 역인 <살아있는 붓다, 살아있는 그리스도> 였다. 그동안 명상/영성/심리학에 연관된 중요한 책들을 여럿 공부해 왔는데 점점 핵심멤버들

‘사피엔스’ 저자 하라리가 바라 본 오늘의 민족주의 “증오의 도구인가 협력의 연대인가”

“성찰 없는 힘은 파멸 불러” 경고

인류가 어떻게 작은 영장류에서 지구의 지배자가 되었는가를 방대하게 그려낸 『사피엔스』는 출간 이후 십수 년이 지난 지금도 독서계의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인류가 ‘상상의 질서’를 통해 협력의 규모를 확장했다는 통찰은 현대 사회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가 되었다.

하지만 최근 유발 하라리 교수는 자신의 SNS와 강연을 통해 민족주의의 본질을 정면으로 파고드는 발언을 이어가며 전 세계 지식계에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하라리 교수는 지난 5월 말 뉴욕타임스(NYT)의 ‘에스라 클라인 쇼’ 인터뷰 등에서 “민족주의는 본질적으로 ‘낯선 타인’을 돌보기 위해 우리를 설득하는 가장 강력한 이야기”라고 재정의했다. 그는 “국가는 구성원 중 99.99%가 서로 모르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민족주의라는 상상의 질서를 통해 서로의 의도와 교육을 위해 세금을 내고 사회적 안전망을 유지하게 만든다”며 이를

민족주의의 본래적이고 긍정적인 기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족주의가 반드시 타인에 대한 배타성과 증오를 동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본질적으로는 ‘내부자에 대한 사랑’이 그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으로 이어졌다. 하라리 교수는 민족주의를 이용해 내부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인들을 겨냥하며, 특히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향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내부적으로 나라를 분열시킨 인물”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그는 이스라엘 민족주의의 가장 큰 적”이라고 직격했다.

민족주의를 ‘타인에 대한 증오’와 ‘내부 분열’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핵심 논지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힘의 논리’ 중심의 우익 민족주의에 대한 경



지난해 한국을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는 유발 하라리 교수.

고이기도 하다.

현대 사피엔스는 이제 민족주의라는 낡은 서사를 증오의 도구로 쓸 것인지, 아니면 타인에 대한 공감이라는 원래의 취지를 회복할 것인지 기로에 서 있다. 하라리의 날카로운 비판은 우리 사회가 민족주의를 재정의하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미래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묵직한 숙제를 남기고 있다.

김학천의 세상만사 이야기



김학천 (치대 70·남가주)

오래전 쇼펜하우어는 짧은 이야기 하나를 세상에 내놓은 적이 있다. 추운 날 고슴도치들이 온기를 나누려 모여 들었지만 가까울수록 가시에 서로 찔린다. 해서 서로 물러나면 이번엔 한기가 뼈를 파고든다. 이런 수없이 반복된 시행착오 끝에 그들은 마침내 찌르지도 찹지도 않는 적당한 거리를 찾아내었다.

어느 정도 냉기를 감수하고 온기를 나누기 위한 불가피한 타협이었던 것이었다. 쇼펜하우어는 이 적정거리를 '예의'라 불렀다. 후에 이 우화는 '고슴도치 딜레마'로 널리 알려졌다. 동양의 오래된 처세술인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도 같은 진실을 담고 있다. 너무 가까이 해서도, 너무 멀리 해서도 안 된다는 것. 동서양이 수백 년의 시차를 두고 같은 결론에 도달한 셈이다. 이렇듯 관계란 그 긴장 속에서 끊임없이 조율되는 것이며, 그 과정이 곧 삶인 것이다. 500여 년 전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화가였지만 동시에 해부학자, 건축가, 음악가, 수학자였다. 그의 잡다한 지식들은 한 인격 안에서 서

고슴도치 딜레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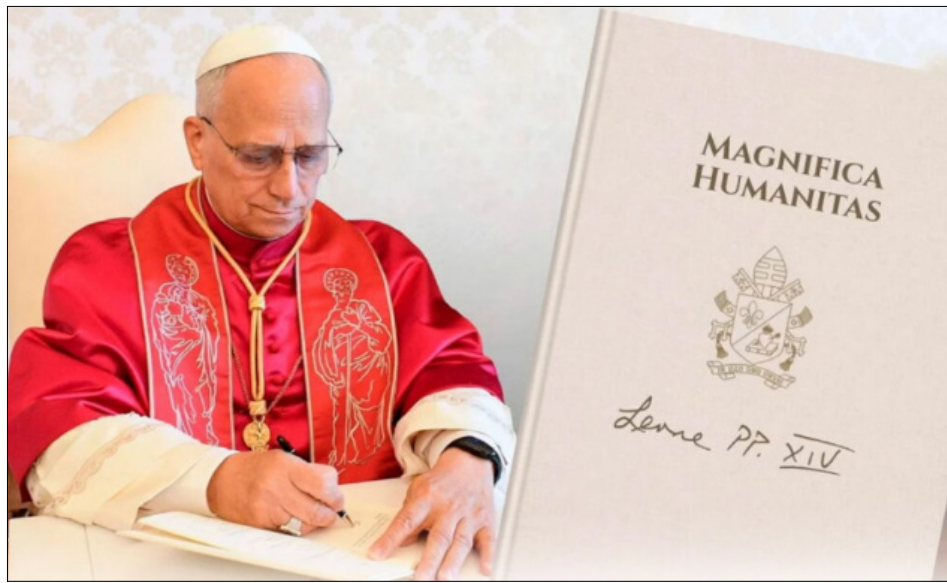
로 부딪치며 새로운 상상력이 됐다. 비단 그 뿐만이 아니라 당시 문명사를 바꾼 거인들은 '제너럴리스트' 융합형 인물들이었다. 오늘날 전문인을 일컫는 '스페셜리스트'에 상대되는 말이다. 오늘날 AI 또한 의학, 법학, 철학, 물리학을 동시에 넘나드는 'AI 제너럴리스트'로 불린다. 얼핏 겉으로는 르네상스의 부활처럼 보인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다빈치에게는 모든 지식을 통섭하는 자아가 있었지만 AI의 지식은 넓기만 할뿐 그 안에 마찰과 번민이 없다. 말하자면 상처 없는 박학다식. 긴장 없는 제너럴리즘일 뿐인 거다. 얼마전 일본 도쿄 한 가정집에서 두 자매가 싸우자 아버지는 이를 말리다 큰딸의 몸을 밀쳐 넘어뜨렸다. 그

는 일본 야구 최고 명문 구단인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사령탑인 아베 신노스케 감독이었다. 쓰러진 큰딸은 챗GPT에 물었다. '아버지로부터 폭행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AI는 아동상담소 연락처를 안내했다. 딸은 그 번호로 전화했고 경찰이 출동했다. 아버지가 체포되자 딸은 크게 당황하며 울음을 터트렸다.

이 짧은 장면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딸은 경찰을 원했던 게 아니었다. 그저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지만 가족이나 친구에게는 말할 수 없었다. 그래서 찌르지 않는 고슴도치를 찾았다. AI가 가까이 있었다. 판단하지 않고 상처 주지 않고 24시간 곁에 있는 존재... 이 사건으로 아베 감독은 '전통 있는 요

미우리 감독의 이름을 더럽혔다'며 눈물을 흘렸고 사퇴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아이러니는, 딸도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마침 바티칸에서 레오 14세 교황이 즉위 후 첫 회칙 '마그니피카 후마니타스(Magnifica Humanitas/위대한 인간성)'를 선언했다. 'AI는 이제 무장해제돼야 하며, 그것을 지배, 배제, 죽음의 도구로 만드는 논리에서 해방돼야 한다.' 기술 자체를 거부하지는 뜻이 아니라, AI가 인간의 취약함과 불완전함을 제거하려 할 때 우리가 잃게 되는 것에 대한 경고였다.

고슴도치들이 찾아낸 적당한 거리는 수없이 찔린 끝에 얻은 지혜였다. 상처를 감수하면서도 조율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인격을 만들고, 관계를 만들고, 사회적 감각을 키우게 한다. 현대 AI는 그 과정을 건너뛰게 해준다. 찌르지 않는 고슴도치. 판단하지 않는 조연자. 상처 없이 따뜻한 존재. 고슴도치 딜레마를 기술적으로 해소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은 분명히 매력적이다. 허나 마찰 없이 얻은 온기는 진짜 온기가 아니요, 마찰 없이 위로만 제공하는 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회피일 뿐일 게다. 마찬가지로 진짜 제너럴리스트는 지식의 폭이 아니라, 지식들 사이의 내적 긴장을 견디는 능력에서 나온다. 어쩌면 교황이 말하는 '위대한 인간성'도 이것이 아닐는지, 찌르고 찔리면서도 곁에 있으려는 의지. 불완전한 언어로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그것이 AI가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영역일 것이다.



레오 14세 교황이 지난 5월 인공지능(AI) 시대 인간 존엄성 수호를 주제로 한 첫 회칙 「마그니피카 후마니타스(Magnifica Humanitas)」에 서명하고 있다.

박용필의 미국인 이야기

월드컵과 미니멀리즘

1970년대 중반, 유럽 취재여행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 있다. 당시 한국은 오늘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세계에 덜 알려진 나라였다.

오스트리아 빈으로 향하는 열차 안에서 만난 한 여학생과의 대화는 적잖은 충격이었다. 그는 역사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이었는데도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처음에는 홍콩 옆에 있는 나라냐고 묻더니, 아니라고 하자 이번에는 동남아시아 어디쯤 아니냐고 되물었다. 베트남전쟁이 한창이던 시절이라 아시아에 대한 그의 인식도 그 정도였던 것 같다.

그 순간의 씁쓸함은 지금도 생생하다.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마치 무시당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전은 며칠뒤 이탈리아에서 일어났다. 로마행 열차에서 옆자리에 앉은 중년 남성이 "야폰(일본)에서 왔느냐"고 물어 "코리아에서 왔다"고 무심히 답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는 환한 표정으로 엄지를 치켜세웠다. "코리아 넘버 원!"

놀란 내가 "코리아를 아느냐"고 묻자 그는 축구 이야기를 꺼냈다. 한국은 세계적인 축구 강국이라고 했다. 당시만 해도 한국 축구의 국제적 위상이 지금과는 달랐기에 의아할 수밖에 없었다.

곧 이유를 알게 됐다. 그가 말한 코리아는 사실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이었다. 1966년 영국 월드컵에서 북한

은 강호 이탈리아를 1대0으로 꺾는 세계 축구사의 대이변을 연출했다. 이탈리아 대표팀은 귀국 후 거센 비난과 살해협박에 시달렸고, 그 충격은 오랫동안 국민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다.

그래서 당시 이탈리아인들에게 '코리아'는 잊을 수 없는 이름이었다. 다만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다는 사실까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세월은 흘러 어느덧 반세기가 지났다.

이번 북중미 월드컵을 보며 문득 그 시절 열차 안의 풍경이 떠올랐다. 예전의 축구 강국 이탈리아는 유럽지역 예선 탈락으로 본선 무대를 밟지 못했고, 미국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특히 미국 축구의 발전은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1994년 미국 첫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 많은 미국인들은 축구를 "여성들이 하는 스포츠" 정도로 인식했다. 남성은 풋볼, 여성은 사커라는 고정관념이 강했다. 당시 미국 여자 축구는 세계를 제패해 월드컵을 여성들만의 잔치로 여겼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가 출전하는 경기장 주변은 경기 시작 몇 시간 전부터 인파로 넘쳐난다. 도시 전체가 축제의 장으로 변한다. 축구는 이제 미국에서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스포츠가 되었다.

메시를 보면 단순히 뛰어난 축구선수 수를 넘어 현대인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방식을 발견하게 된다.

젊은 선수들은 경기 내내 쉬 없이 뛰어다닌다. 반면 메시는 종종 걷는다. 카메라는 그가 천천히 경기장을 배회하는 모습을 자주 비춘다. 마치 경기에 집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게으름이 아니다. 그는 끊임없이 공간을 읽고, 상대 수비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결정적 순간을 기다린다. 불필요한 전력질주를 줄이고 체력을 아껴 가장 필요한 순간에 폭발적인 스피드와 창의적인 패스, 치명적인 슈팅을 만들어낸다.

메시의 축구는 한마디로 '미니멀리즘'(minimalism)이다.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대의 결과를 얻는다. 적게 움직이지만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많은 것을 하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해낸다.

생각해 보면 우리 삶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늘 바쁘다. 하루 종일 휴대폰 알림에 반응하고, 끝없는 뉴스와 영상에 시간을 빼앗기고, 불필요한 인간관계와 모임에 에너지를 소모한다.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중요한 일에는 충분한 힘을 남겨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다. 젊을 때는 체력으로 버틸 수 있지만 인생의 후

반전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모든 일에 관여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도 없다.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고, 의미 없는 경쟁에서 한 걸음 물러서고,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 해야 할 일보다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구분하는 지혜를 갖는 것. 그것이 인생의 효율을 높이는 길이 아닌가 싶다.

메시가 경기장 위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진다.

인생은 누가 더 많이 뛰느냐의 경쟁이 아니다. 누가 더 오래 바쁘게 사느냐를 겨루는 것도 아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해내는 사람이 결국 승자가 된다.

반세기 전 유럽의 열차에서 만난 이탈리아 남성이 지금도 살아 있다면, 아마 TV 앞에서 "쏘니! 쏘니!"를 외치며 손흥민의 한국을 응원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리고 나는 그 모습을 상상하며 또 하나의 깨달음을 얻는다.

인생도 축구와 같다. 끝없이 뛰기보다 방향을 읽어야 하고, 많이 갖기보다 중요한 것을 남겨야 한다. 결국 행복은 더 많은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에 집중할 때 찾아온다.

그것이 메시가 이번 월드컵에서 보여주는 미니멀리즘이며, 우리 모두가 인생에서 배워야 할 가장 아름다운 기술인지도 모르겠다. <편집고문>

서울대 온 엔비디아 젠슨 황 “한국 AI 환경 부럽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서울대를 방문해 “인공지능(AI) 혁명의 기회를 붙잡으라”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황 CEO는 지난 6월 8일 서울대 해동첨단공학관에서 열린 ‘빌드 어 클로’(Build a Claw) 행사에 참여해 학생들을 만났다. 이 행사는 엔비디아와 서울대가 공동으로 주최한 것으로, 학생들이 자율형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직접 설계하는 행사다.

황 CEO는 한국의 젊은 인재들을 직접 만나고 싶다고 이날 행사에 참석했다. 젠슨 황의 참석 소식이 알려지며 행사 사전 신청은 선착순 1,000명 모집이 3시간 만에 마감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모았다.

황 CEO는 이날 연설에서 한국에 대해 “뛰어난 전자·기계공학 산업과 클라우드·모바일 기술, AI 역량을 동시에 갖춘 나라는 많지 않다”며 “이 모



서울대학교를 방문한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유홍림 총장, 서울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기념 셀카를 촬영하고 있다

든 것을 갖춘 한국에서 성장하는 여은 무엇이든 앞에 K만 붙이면 인기러분이 부럽다”고 했다. 이어 “요즘를 얻는다”며 자신을 ‘K-젠슨’이라고

불러달라고 말해 환호를 이끌었다. 그는 또 최고의 시기에 졸업하는 학생들이 부럽다며 “모든 사람이 여러분과 같은 출발선에 서 있다. 놀라운 기술을 손에 쥐고 그 출발선에 서 있는 여러분에게는 이 기술을 만들어가고, 적용하고, 활용할 엄청난 기회가 있다”고 격려했다.

그는 약 15분간의 연설을 마친 뒤 현장에 참석한 학생들에게 친필 사인이 담긴 개인용 AI 슈퍼컴퓨터 ‘DGX 스파크’ 등을 선물했다. 이후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황 CEO에게 서울대 접퍼와 규장각 고지도를 전달하고, 학생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한편, 지난 4월에는 브라이언 카탄자로(Bryan Catanzaro) 엔비디아 부사장과 매디슨 황(Madison Huang) 엔비디아 피지컬 AI 플랫폼 제품·기술 마케팅 시니어 디렉터가 서울대를 연이어 방문하기도 했다.

“달라서 배우고, 배워서 달라진다”

다양성위원회 출범 10년 국내 대학 최초의 도전

서울대 다양성위원회(위원장 이은주)가 올해 출범 10주년을 맞았다.

2016년 국내 대학 최초의 총장 직속 자문기구로 설립된 이래, 다양성위원회는 연구·정책 개발·연례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서울대를 ‘누구나 존중받는 삶의 현장’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그 10년의 여정을 돌아보고 미래를 그리는 자리가 지난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관악캠퍼스 곳곳에서 마련됐다. 이번 문화다양성주간은 ‘함께 만든 10년, 함께 그릴 미래’를 주제로 포럼·발표회·북토크·영화 상영회·음악 공연·국제 포틀럭 행사까지 총 8개 프로그램으로 꾸러졌다.

첫날 개최된 10주년 기념 포럼에서 유홍림 총장은 “달라서 배우고, 배워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라며 다양성의 가치를 강조했다.

이은주(신문90) 위원장은 “당연함을 흔들고 묻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화두를 던졌

서울대 다양성 지표		(2024년 10월 1일 기준)
56,397명	서울대 학생·교원·직원 수	
110개국	서울대 내 외국인 정규학생과 교환학생 출신 국가 수	
2160명	서울대 전체 외국인 학생	
39.7%	서울대 내 전임교원 중 여성 혹은 외국인 그리고 타교 출신 교원 비율	
35.3%	학부 재적생 중 여성 비율	

다. 다양성위원회의 출발점은 여교수 회였다. 논의가 시작된 2015년 서울대 여성전임교원 비율은 14.6%로 전국 평균(22.3%)에도 못 미쳤다. 이 문제의 제도적 개선을 고민하던 여교수회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다양성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합의에 이르렀고, 당시 여교수회장이었던 노정혜(미생물75) 교수가 성낙인 총장에게 설립을 요청해 1년의 준비 끝에 다양성위원회가 출범했다.

이후 카이스트·고려대·경북대·부산

대 등 여러 대학에도 다양성·포용성위원회가 잇따라 생겨났다. 10년의 노력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다양성위원회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지표인 다양성 임용(전임교원 중 여성·외국인·타교 학부 출신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비율)은 2016년 29.1%에서 2024년 39.7%로 꾸준히 상승했다. 현재 서울대에는 5만 6397명의 학생·교원·직원이 재학·재직하며, 110개국 출신 외국인 학생 2160명이 함께 공부하고 있다.

학부 재적생 중 여성 비율은 35.3%다. 그러나 다양성위원회가 중시하는 것은 숫자만이 아니다. 기도실 위치, 비건 식당 안내처럼 ‘매일의 일상에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편안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장벽을 낮추는 일이다. 이은주 위원장은 “어떤 조건도 배제와 침묵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지난 10년의 노력을 이어받아 제도와 관행을 점검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문화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남주 기자**

‘AI Native Campus’ 본격화 전 구성원에 ChatGPT Edu

서울대가 6월부터 교수·학생·직원 등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ChatGPT Edu 서비스를 정식 제공한다.

이는 지난 4월 ‘AI Summit 2026’에서 공표한 ‘AI Native Campus’ 비전 실현의 핵심 축으로, 대학 차원의 통합 AI 활용 생태계 구축을 본격화하는 조치다. ChatGPT Edu는 교육기관 전용 생성형 AI 서비스로, 사용자의 입·출력 데이터가 모델 학습에 활용되지 않는 높은 보안 환경이 특징이다.

서울대는 공동연구·수업·에이전트 개발 지원은 물론, AI 기반 코

딩틀 Codex, OpenAI API 등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높은 구독 비용으로 고급 AI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AI 서비스 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서울대는 이번 도입을 발판으로 OpenAI와의 연구협력도 심화한다. 하버드대·MIT·옥스퍼드대 등이 참여하는 OpenAI의 글로벌 대학 연구 네트워크 ‘NextGenAI 컨소시엄’에 합류해 인문·사회 분야를 포함한 전 영역에서 생성형 AI 활용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서울대는 또한 ‘인간 중심의 세계



대전환을 이끄는 빛, 사인 AI’ 비전 아래 자체 AI 활용 경험을 국내 다른 대학들과 공유하며 국가 고등교육의 AI 전환(AI) 역량을 세계 수준으로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2026년 1월 제정된 ‘AI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윤리적·책임 있는 AI 활용 문화 정착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Chicago

**Appliance Sales
MCA Corporation**

조규승 (문72)
T: 630-238-0600
940 N. Central Avenue
Wood Dale, IL 60191
salessupport@magicchef.com
www.magicchef.com

서울대 미주동창회 CENTURY FOUNDATION

재정자립 모금 캠페인

후원해 주신 동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변함없는 사랑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영원히 새겨질 나의 이름”
서울대 미주동창회 종신이사

재정자립기금 \$1,324,971 (as of 01.25.2026)

*지난 회보에 게재된 금액은 모교발전기금과 장학기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종신이사

다이아몬드이사 (\$100,000이상)

워싱턴주-故고광선 (공57)
뉴욕-조상근 (법69)
필라델피아-신의석 (공53)

플래티넘이사 (\$50,000 이상)

조지아-주중광 (약60)
조지아-허지영 (문66)

골드이사 (\$10,000 이상)

워싱턴주-양남주 (명예이사)
남가주-김경숙 (간68)
남가주-김일영 (의65)
남가주-김보연 (간63)
남가주-김용재 (의60)
남가주-노명호 (공61)
남가주-박종수 (수의58)
남가주-박창규 (약59)
남가주-서동영 (사60)
남가주-서치원 (공69)
남가주-성낙호 (치63)
남가주-심화섭 (약61)
남가주-이기준 (법54)
남가주-이병준 (상55)
남가주-이홍표 (의58)
남가주-벤자민홍 (문53)
남가주-하기환 (공66)
남가주-한귀희 (미68)
남가주-한홍택 (공60)
남가주-홍수웅 (의59)
남가주-홍훈정 (음70)
남가주-정상진 (상59)
뉴욕-강에드워드 (사60)
뉴욕-오인석 (법58)
뉴욕-이정자 (간59)
뉴잉글랜드-박영철 (농64)
뉴잉글랜드-오세경 (약61)
뉴잉글랜드-윤상태 (수의62)
뉴잉글랜드-정선주 (간68)
뉴잉글랜드-최홍균 (공69)
미시간-박용화 (의58)
북가주-강재호 (상57)
북가주-김정희 (음56)

북가주-민병곤 (공65)
북가주-전혜경 (문67)
샌디에고-이면기 (공64)
시카고-이용락 (공48)
시카고-조규승 (문72)
워싱턴주-김재훈 (공72)
워싱턴DC-이태영 (법60)
조지아-김현희 (간59)
커네티컷-김창수 (의54)
필라델피아-김영우 (공55)
필라델피아-손재욱 (가정77)
필라델피아-이만택 (의52)
하트랜드-이상강 (의70)
하트랜드-김경숙 (가정70)

실버이사 (\$5,000 이상)

남가주-故김원경 (약59)
남가주-故김병연 (공68)
남가주-故이종도 (공66)
남가주-권봉성 (문64)
남가주-김수영 (사57)
남가주-박인창 (농65)
남가주-이종묘 (간69)
남가주-이호진 (간74)
남가주-정임현 (간72)
남가주-정재훈 (공64)
남가주-홍성선 (약72)
뉴욕-김현중 (공63)
미네소타-황효숙 (사65)
북가주-박순희 (의60)
북가주-남광순 (음64)
북가주-차재철 (의62)
북텍사스-강영빈 (문58)
북텍사스-이승화 (공03)
워싱턴DC-남옥현 (경영84)
워싱턴DC-배성호 (의65)
워싱턴DC-최재귀 (미63)
조지아-김경숙 (사64)
조지아-김태형 (의57)
조지아-임수암 (공62)

종신이사 (\$3,000 이상)

남가주
故노재성 (법58)

故박명근 (상63)
故박윤수 (문48)
故서영석 (의55)
故오재인 (치33)
故윤낙승 (의60)
故오홍조 (치56)
강신용 (사73)
곽용길 (문59)
권기홍 (의60)
김광은 (음56)
김기형 (상75)
김대중 (의70)
김동훈 (의71)
김보연 (간63)
김상찬 (문65)
김성호 (법64)
김자성 (의79)
김재영 (농62)
김정빈 (공66)
김홍묵 (문60)
나두섭 (의66)
나용화 (생과79)
류재풍 (법60)
박용필 (문66)
박원준 (공53)
방명진 (공73)
백길영 (의58)
백만일 (공64)
신건호 (법53)
신경자 (사60)
신영찬 (의63)
심상은 (상54)
안병일 (의63)
이근원 (공67)
이명선 (상58)
이성숙 (공56)
이세열 (사57)
이승훈 (상74)
이채진 (문55)
이청광 (상61)
임낙균 (약64)
임용오 (의57)
전경배 (의69)
전희택 (의58)
정균희 (의64)
정희영 (치58)

정동구 (공57)
정철룡 (의61)
제영혜 (가정71)
조용문 (문66)
조한원 (의57)
차민영 (의76)
차종환 (사54)
한효동 (공58)
홍성선 (약72)
홍종화 (약74)
황해룡 (공52)

뉴욕

故김광호 (문62)
故한창섭 (문57)
故김종률 (사51)
고애자 (음57)
권영국 (상60)
김승호 (공71)
김영용 (치55)
김한중 (의56)
김해암 (의52)
배정희 (사54)
서영숙 (간67)
석창호 (의66)
손병우 (문69)
손진태 (약67)
신용남 (농70)
오용호 (의66)
윤인숙 (간63)
윤종숙 (약66)
이강홍 (상60)
이기영 (농70)
이대영 (문64)
이영재 (상58)
이재덕 (법60)
이재량 (상61)
이전구 (농60)
이준행 (공48)
이태호 (상58)
조대일 (사53)
최수용 (상55)
최영태 (문67)
최한용 (농58)
최형무 (법69)
추재욱 (의57)

한태진 (의58)
허선행 (의58)
뉴잉글랜드
故고일석 (보건69)
故박경민 (의53)
김광수 (문73)
고종성 (사75)
김문소 (수의61)
김용구 (공66)
오세경 (약61)
윤선홍 (치64)
이의인 (공68)
전신의 (문57)
정정욱 (의60)
정태영 (문71)
조만연 (상58)
홍지복 (간70)

미네소타

김권식 (공61)
김태환 (의58)
남세현 (공67)
문성인 (공88)
박현아 (공88)
변우진 (문81)
송창원 (문53)
조형준 (문62)

미시간

故남상용 (공52)
故정태 (의57)
장병진 (공61)

북가주

박종성 (법53)
박진영 (공66)
손석보 (공68)
윤정욱 (약50)
최경선 (농65)
한만섭 (공49)
황동하 (의65)

샌디에고

임천빈 (문61)
유현주 (문65)
진성호 (공64)

시카고

故이윤모 (농57)
故강영국 (수의67)
故최의필 (의53)
소진문 (치58)
심상구 (상63)
윤봉수 (간69)
이재희 (치67)
장윤일 (공60)
조봉완 (법53)
한재은 (의59)

알래스카

윤재중 (농55)

오레곤

김상순 (상67)
박희진 (농78)
이은상 (상52)

오하이오

김용현 (경영66)
이지우 (의68)

워싱턴주

故김영일 (공53)
이명자 (간74)
이희백 (의55)
임현민 (공84)

워싱턴 DC

故방은호 (약43)
故서휘열 (의57)
강연식 (사58)
공순욱 (간66)
권기현 (사53)
민홍기 (문61)
박평일 (농69)
오인환 (문63)
이내원 (사58)
이선구 (문65)
이윤주 (상63)
최지원 (의61)

조지아

김용건 (문48)
석호태 (공85)
성성호 (사67)
이종석 (의54)

커네티컷

故유시영 (문68)

텍사스

박태우 (공64)
이광연 (공60)
조시호 (문59)

플로리다

김중권 (의63)
박우삼 (의54)
임필순 (의54)

필라델피아

고병은 (문55)
김현영 (수의58)
서종민 (공64)
신성식 (공56)
주기목 (수의68)
최중무 (상63)

하와이

故최경윤 (사51)

하트랜드

故김명자 (문62)
김시근 (공72)
배규영 (사68)
오명순 (가정69)
이교락 (의53)

휴스턴

박진섭 (의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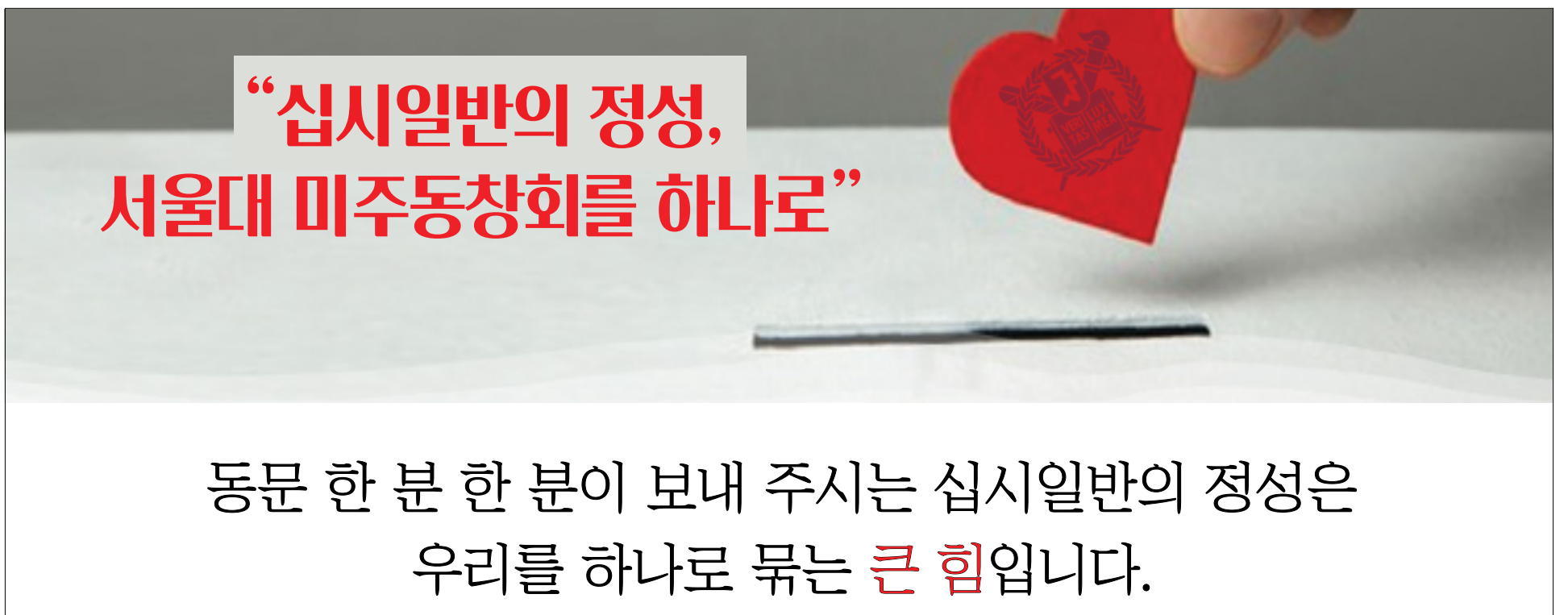




*1,2차 회기 모두 내신 동문님은 명단에 BOLD로 바꿉니다.

동창회비 | 1차: 2025.7.1~2026.6.30, 2차: 2026.7.1~2027.6.30

<p>남가주 강경수 (법58) 강동순 (법59) 강호석 (상81) 고윤석 (공62) 김경숙 (가정70) 김경자 (미60) 김광주 (문69) 김광은 (음56) 김기형 (상75) 김동산 (법59) 김동석 (음64) 김병완 (공58) 김상순 (상67) 김상찬 (문65) 김성호 (법64) 김수영 (사57) 김정복 (사55) 김중표 (법58) 김준식 (상75) 김영덕 (법58) 김원배 (미61) 김영중 (치66) 김옥경 (사60) 김원탁 (공65) 김택수 (의57) 김평우 (법63) 김학수 (공76) 김홍묵 (문60) 김희창 (공64) 나두섭 (의66) 나승욱 (문59) 노명호 (공61) 문병길 (문61) 박은숙 (미62) 박인수 (농64) 박원준 (공53) 박중수 (수의58) 박호현 (의52) 백혜란 (미70) 벤자민홍 (문53) 서동영 (사60) 선우원근 (공66) 손학식 (공61) 송명국 (인문81) 송태진 (공79) 신건호 (법53) 신동국 (수의76) 신영찬 (의63) 심계식 (사63)</p>	<p>양은석 (음70) 양태준 (상56) 오선웅 (의63) 윤석철 (상60) 이방기 (농59) 이범식 (공61) 이상강 (의70) 이서희 (법70) 이연숙 (간76) 이용한 (공64) 이원익 (문73) 이종묘 (간69) 이진영 (의65) 이재권 (법56) 이창신 (법57) 이채진 (문55) 이호진 (간74) 이홍표 (의58) 임동규 (미57) 임창희 (공73) 장문섭 (공69) 장소현 (미65) 장원경 (미73) 장윤경 (사60) 장인숙 (간70) 정동주 (생72) 정명자 (사56) 정예현 (상63) 정 황 (공64) 조동철 (사68) 조 무 (법70) 주정래 (상65) 채규환 (법69) 천동우 (공63) 최영순 (간69) 한귀희 (미68) 한홍택 (공60) 한효동 (공58) 함송욱 (간73) هنگ기웅 (문64) 홍선례 (음70) 홍성선 (약72) 홍성애 (간60) 황건홍 (공55) 황현상 (의55) 뉴욕 강에드워드 (사60) 고순정 (간69) 고애자 (음57) 권문용 (미61)</p>	<p>권영국 (상60) 권영대 (공69) 권정덕 (의58) 금영천 (약72) 김광현 (미57) 김문경 (약61) 김복영 (간69) 김용연 (문63) 김옥현 (의59) 김은희 (간78) 김정희 (간69) 김정희 (약56) 김중원 (사58) 김현중 (공63) 리준무 (음65) 민인기 (의67) 박건이 (공60) 박경희 (음57) 박은규 (약72) 박제순 (인문82) 방준재 (의63) 배상규 (약61) 변건웅 (공65) 서병선 (음65) 서의원 (공66) 석창호 (의66) 선종철 (의57) 성기로 (약57) 손갑수 (약59) 손진태 (약67) 송기인 (의60) 송용섭 (농63) 송용길 (대학원69) 신응남 (농70) 안태홍 (상65) 양명자 (사63) 양성택 (상66) 우규환 (사60) 유재섭 (공65) 유은희 (간71) 유호근 (문71) 윤영섭 (의57) 이강욱 (공70) 이경림 (상64) 이대영 (문64) 이문봉 (미76) 이상근 (경영84) 이상무 (의56) 이영범 (공71) 이영희 (미68)</p>	<p>이용대 (약63) 이재원 (상58) 이재진 (의59) 이충호 (의63) 이태안 (의61) 이흥우 (공50) 정동성 (상58) 조남천 (사59) 조대영 (공61) 조태환 (상56) 진봉일 (공50) 최준희 (의58) 최한용 (농58) 최형무 (법69) 함중금 (간66) 허영자 (약63) Yong Auh (의66) 뉴잉글랜드 김경일 (공58) 김선혁 (약59) 김문소 (수의61) 김옥동 (사58) 김형범 (문57) 박종건 (의56) 박중승 (의56) 신정운 (공60) 윤상래 (수의62) 윤영자 (미60) 이규진 (약60) 이금하 (문69) 한서동 (의61) 현건섭 (공55) 록키마운틴스 임현재 (의59) 미네소타 김권식 (공61) 문성인 (공88) 박현아 (공88) 성욱진 (치87) 임동근 (농14) 주한수 (수의62) 황호숙 (사65) 미시간 오동환 (의65) 이성길 (의65) 조병권 (공64) 주명순 (간64) 최병두 (의52) 하계현 (공64) 한영신 (생과86)</p>	<p>북가주 강재호 (상57) 김갑근 (공60) 김교연 (문72) 김종현 (공60) 김현왕 (공64) 민병근 (공65) 박서규 (법56) 박정규 (간76) 부영무 (치72) 손창순 (공69) 신규영 (공64) 안호삼 (문58) 온기철 (의65) 위창호 (의67) 윤성희 (사58) 이정남 (공63) 임정관 (음76) 전병련 (공54) 정지선 (상58) 정춘임 (간67) 정한규 (의63) 최경선 (농65) 한상봉 (수의67) 홍병익 (공68) 황동하 (의65) 황만익 (사59) 북텍사스 송요한 (문73) 최희기 (공61) 샌디에고 김인철 (약70) 안승적 (농59) 유성열 (공대72) 윤석진 (문64) 이길송 (상57) 이정관 (농83) 이회백 (의55) 정영자 (사60) 최두환 (공83) 최준한 (농58) 김용환 (공71) 김정수 (문69) 김현주 (문61) 민영기 (공65) 박창용 (공87) 백운기 (문56) 서상현 (의65) 소진문 (치58) 신석균 (문54)</p>	<p>심상구 (상64) 윤경순 (사61) 윤덕상 (치62) 이건정 (공69) 이경미 (미69) 이덕수 (문58) 이동규 (공75) 이영우 (문66) 이용수 (약51) 이재희 (치67) 이준수 (공76) 장윤일 (공60) 정성일 (공86) 조규승 (문72) 최희수 (문67) 한의일 (공62) 한재은 (의59) 홍 건 (의64) 홍승우 (사회87) 홍철일 (약57) 황치룡 (문65) 오레곤 박희진 (농78) 한국남 (공57) 애리조나 진명규 (공70) 오하이오 유덕영 (공57) 워싱턴주 김인배 (수의59) 김재훈 (공72) 안승적 (농59) 유성열 (공대72) 윤석진 (문64) 이길송 (상57) 이정관 (농83) 이회백 (의55) 정영자 (사60) 최두환 (공83) 최준한 (농58) 워싱턴 DC 강길중 (약69) 권철수 (의68) 김내도 (공62) 김부근 (의52) 김용환 (치88) 김희주 (의62) 나연수 (사54) 남춘일 (사69) 박상근 (법75)</p>	<p>박인영 (의69) 박일영 (문59) 박홍우 (문61) 배성호 (의65) 백용현 (공64) 서윤석 (의62) 석균범 (문61) 오인환 (문63) 우제형 (상54) 이내원 (사58) 이민석 (공89) 이선구 (문65) 이상배 (수의57) 이연주 (치88) 이종국 (의52) 이준영 (치74) 정문필 (사56) 정 상 (약83) 정원자 (농62) 정평희 (공71) 최대용 (의73) 최재귀 (미63) 홍영석 (공58) 조지아 김기준 (공61) 김영서 (상54) 김학수 (상65) 남세현 (공67) 서광모 (공65) 성성모 (사67) 이종석 (의54) 임수암 (공62) 정선휘 (공65) 최종진 (의63) 중부텍사스 이학호 (수의59) 캐롤라이나 이종영 (음58) 정신호 (자연78) 조철영 (의68) 테네시 권준희 (가정87) 김경덕 (공75) 김 현 (문93) 서갑식 (공70) 텍사스 이승화 (공03) 천양곡 (의63) 황명규 (공61)</p>	<p>플로리다 김중권 (의63) 박우삼 (의54) 오석일 (의64) 이만택 (의52) 이민우 (의61) 필라델피아 강준철 (사59) 고석규 (치65) 김국간 (치64) 김영남 (의61) 김현영 (수의58) 서종민 (공64) 손재욱 (가정77) 신선자 (사60) 신성식 (공56) 심영석 (공76) 안세현 (의62) 오진석 (치56) 윤정나 (음57) 이규호 (공56) 이성수 (가정74) 전방남 (상73) 정덕준 (상63) 정홍택 (상61) 주기목 (수의68) 지흥민 (수의61) 조화연 (음64) 최중무 (상63) 최현태 (문62) 하틀랜드 구명순 (간66) 이주현 (미92) 정민재 (농70) 하와이 김용수 (농75) 안은식 (문55) 이재형 (수의61) 휴스턴 류유미 (약62) 박태우 (공64) 이길영 (문59) 진기주 (상60) 최성호 (문58) 하재청 (문67)</p>
--	---	---	--	--	---	---	---



일반후원금, 장학후원금, Brain Network 후원금, Charity 후원금, 광고후원금, 지부분담금 | 2025.7.1~

<p>일반후원금</p> <p>남가주</p> <p>김기형 (상75) 600</p> <p>김상순 (상67) 300</p> <p>김영배 (미61) 200</p> <p>김정상 (경제91) 300</p> <p>김종표 (법58) 200</p> <p>박종수 (수의58) 3,000</p> <p>송명국 (인문81) 100</p> <p>신영찬 (의63) 200</p> <p>양은석 (음70) 200</p> <p>윤석철 (상60) 2,000</p> <p>이범식 (공61) 200</p> <p>이병준 (상55) 10,000</p> <p>정예현 (상63) 200</p> <p>정임현 (간72) 1,000</p> <p>한귀희 (미68) 2,000</p> <p>황현상 (의55) 200</p> <p>익명요청 1,000</p> <p>뉴욕</p> <p>강에드워드 (사60) 700</p> <p>리준무 (음65) 500</p> <p>신응남 (농70) 3,000</p> <p>조남천 (사59) 300</p> <p>뉴잉글랜드</p> <p>오세경 (약61) 3,000</p> <p>윤상래 (수의62) 1,000</p> <p>정선주/박영철 (간68, 농64) 5,000</p> <p>미네소타</p> <p>강순건 (문57) 1,000</p> <p>김권식 (공61) 41,000</p>	<p>황효숙 (사65) 40,000</p> <p>미시간</p> <p>고광국/고국화(공54, 56) 1,000</p> <p>오동환 (의65) 400</p> <p>북가주</p> <p>황만익 (사59) 200</p> <p>샌디에고</p> <p>임춘수 (의57) 200</p> <p>시카고</p> <p>조규승 (문리72) 1,000</p> <p>이용수 (약51) 250</p> <p>서상현 (의65) 100</p> <p>최희수 (문67) 100</p> <p>오레곤</p> <p>박희진 (농78) 200</p> <p>오하이오</p> <p>故정운행 (문53) 500</p> <p>조지아</p> <p>성성모 (사67) 200</p> <p>이종석 (의54) 100</p> <p>워싱턴 DC</p> <p>강길종 (약69) 500</p> <p>권철수 (의68) 500</p> <p>박상근 (법75) 1,000</p> <p>박평일 (농69) 1000</p> <p>서윤석 (의62) 200</p>	<p>정평희 (공71) 200</p> <p>캐롤라이나</p> <p>조철영 (의68) 200</p> <p>테네시</p> <p>김경덕 (공75) 100</p> <p>플로리다</p> <p>김중권 (의63) 200</p> <p>필라델피아</p> <p>손재욱 (가정77) 500</p> <p>이성숙 (가정74) 300</p> <p>휴스턴</p> <p>진기주 (상60) 1,000</p> <p>장학후원금</p> <p>남가주</p> <p>김종섭 (문66) 10,000</p> <p>김홍목 (문60) 300</p> <p>노명호 (공61) 10,000</p> <p>박원준 (공53) 500</p> <p>한홍택/백훈(공60, 미61) 10,000</p> <p>황현상 (의55) 100</p> <p>미네소타</p> <p>김권식 (공61) 10,000</p> <p>황효숙 (사65) 10,000</p> <p>미시간</p> <p>고광국/고국화 (공54, 공56) 200,000</p>	<p>워싱턴 DC</p> <p>이경애 (문58) 10,000</p> <p>테네시</p> <p>권준희 (가정87) 100</p> <p>필라델피아</p> <p>손재욱 (가정77) 5,000</p> <p>플로리다</p> <p>오석일 (의64) 200</p> <p>커네티컷 기부 후원</p> <p>故유시영(문68) 10,000</p> <p>Brain Network 후원</p> <p>워싱턴 DC</p> <p>오인환 (문63) 200</p> <p>광고후원금</p> <p>남가주</p> <p>강호석 (상81) 250</p> <p>김영도 (공67) 250</p> <p>김자성 (의79) 500</p> <p>김원탁 (공65) 240</p> <p>김한신 (서양사92) 500</p> <p>김홍일 (치62) 250</p> <p>독고량/서정화(음80) 250</p> <p>박상효 (의65) 250</p> <p>배재현 (공75) 500</p> <p>서동영 (사60) 740</p> <p>송미선 (음89) 500</p> <p>신정식 (상64) 500</p> <p>양은석 (음70) 125</p> <p>이명선 (상58) 1,000</p>	<p>이병준 (상55) 1,000</p> <p>이상대 (농80) 250</p> <p>이승훈 (상74) 1,000</p> <p>이종모 (간호69) 240</p> <p>이찬용 (치72) 500</p> <p>이현림 (음81) 500</p> <p>정균희 (의64) 1,000</p> <p>최운화 (상78) 250</p> <p>하기환 (공66) 1,000</p> <p>하선호 (치81) 250</p> <p>한태호 (문75) 500</p> <p>Duo America 300</p> <p>남가주 대학원동문회 1,000</p> <p>아주여행사 500</p> <p>SNU Foundation 4,000</p> <p>OB 산악회 1,000</p> <p>Korean Dance Institute 125</p> <p>SNU 공대 500</p> <p>북가주</p> <p>이경희 (인문83) 500</p> <p>뉴욕</p> <p>석창호 (의66) 240</p> <p>신응남 (농70) 500</p> <p>미네소타</p> <p>황효숙 (사65) 1,000</p> <p>시카고</p> <p>조규승 (문리72) 1,240</p>	<p>워싱턴 DC</p> <p>남옥현 (경영84) 1,000</p> <p>정세근 (자연82) 500</p> <p>필라델피아</p> <p>손재욱 (가정77) 240</p> <p>지부분담금</p> <p>남가주 3,000</p> <p>뉴욕 3,000</p> <p>뉴잉글랜드 1,000</p> <p>로키마운틴 200</p> <p>미네소타 550</p> <p>미시간 300</p> <p>북가주 1300</p> <p>북텍사스 550</p> <p>샌디에고 550</p> <p>시카고 2,400</p> <p>애리조나 200</p> <p>일래스카</p> <p>오레곤</p> <p>오하이오 300</p> <p>유타</p> <p>워싱턴DC 2,000</p> <p>워싱턴주 800</p> <p>조지아 800</p> <p>중부텍사스</p> <p>캐롤라이나 200</p> <p>커네티컷 300</p> <p>테네시</p> <p>필라델피아 1,000</p> <p>플로리다 300</p> <p>하트랜드 550</p> <p>하와이</p> <p>휴스턴 550</p>
---	---	--	---	--	--

*동문들께서 보내주신 동창회비와 후원금은 매달 25일에 마감해서 올립니다. 혹시 누락된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snuuaa.org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동창회 후원금	동창회비	종신이사	광고비	특별 후원금
<input type="checkbox"/> \$ 200 <input type="checkbox"/> \$ 500 <input type="checkbox"/> \$ 1,000 <input type="checkbox"/> \$ _____	<input type="checkbox"/> \$100 (7/2025~6/2026, 1년) <input type="checkbox"/> \$100 (7/2026~6/2027, 1년) <input type="checkbox"/> \$200 (7/2025~6/2027, 2년)	<input type="checkbox"/> \$ 3,000 <input type="checkbox"/> \$ 5,000 실버 <input type="checkbox"/> \$10,000 골드 <input type="checkbox"/> \$50,000 플래티넘 <input type="checkbox"/> \$100,000 이상, 다이아몬드	<input type="checkbox"/> Full Size \$1,000 <input type="checkbox"/> 1/2 Size \$ 500 <input type="checkbox"/> 1/3 Size \$ 300 <input type="checkbox"/> 1/4 Size \$ 250 <input type="checkbox"/> 웹사이트(1년) \$ 500	<input type="checkbox"/> SNUAA 장학후원 <input type="checkbox"/> Charity Fund (나눔) <input type="checkbox"/> Brain Network <input type="checkbox"/> 모교 발전기금
TOTAL \$ _____ Make check payable to: SNUAA USA 주소: SNUAA USA 855 Village Center Drive, Suite 357 North Oaks, MN 55127		한국 이름 _____ 영어 이름 _____ 이메일 _____ 현주소 _____	단과대 _____ 학번 (입학년도) _____ 지부 _____ 전화번호 _____	
업소록 광고비		업소명 _____	한국이름 _____ 업소 주소 _____	단과대 _____ 학번 (입학년도) _____ 지부 _____ 업소 전화번호 _____
<input type="checkbox"/> \$240 (2025/7~2026/6, 1년) *2026년도 업소록 광고를 원하시는 동문께서는 광고비를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 미주동창회는 기부자들이 세금보고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501(c)(3) 비영리단체로, EIN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은 13-3859506 입니다.



서울대 미주동창회
SNU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지속 가능한 우리 동창회 언제나 당신이 필요합니다.

미주동창회는 장학과 교육을 통해 차세대 인재의 육성을 지원하고, 지역 사회 공헌으로 나눔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기회를 창출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만들어 모교의 인류에 공헌하는 교육사업을 지원합니다.

EDUCATIONAL

- SNUAA Scholars Program**
서울대 ISP와 연계한 미래 세대 리더 육성
- SNUAA Forum**
동문 간 전문성을 잇는 지식 교류 플랫폼 운영
- Medical Student Exchange Initiative**
서울대-미국 대학 의대 학생 교환 프로그램 지원
- International Academic Exchange**
서울대-미국 대학 글로벌 인재 교환 프로그램 지원

CHARITABLE & CULTURAL

- 사회 공헌 사업 지원**
지부 공익 활동 및 자선 행사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
- 문화 사업 지원**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 활동 지원 사업 추진

MISSION INFRASTRUCTURE

- 월간 동창회보 발행**
소식지 발행을 통한 동문 소통 및 참여 확대
- 디지털 플랫폼 구축 및 관리**
SNUAA USA Web 기반 디지털 소통 허브 운영

OPPORTUNITY BUILDING

- Entrepreneurship Network**
젊은 동문의 창업을 돕는 네트워크 플랫폼 운영
- SNU Global Connect @ CES**
CES와 연계해 차세대 동문 창업을 세계와 연결

FELLOWSHIP

- Senior Alumni Care**
설문조사 등을 통한 선배 동문 복지 수요 파악 및 지원
- Alumni Engagement**
지역별 동문 친선 행사 지원

동창회비 및 후원금 납부 방법

Check Payable to: SNUAA USA	주소(하단 참조)	QR Code
612-280-7589	snuaa.org	contact@snuaa.org

SNUAA USA, 855 Village Center Drive Suite 357, North Oaks, MN 55127

남가주 | CA

부동산

Team Spirit Realty

이종묘 (간호대 69), Jennie Lee
T: 714-396-0624
jennielee@gmail.com

기계/기술/전자

Link TV Media

김원탁 (공대 65) O: 818-514-6780
M: 818-720-2373
24208 Park Athena Calabasas, CA 90302
linkboxusa@gmail.com
www.linkboxusa.com

자동차/서비스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 (사대 60) T: 310-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뉴욕 / NY.NJ

의료/병원

석창호 위장내과

석창호 (의대 66) T: 718-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필라델피아 | PA

건축

THA Consulting, Inc.

손재욱 (가정대 77) T: 484-342-0200
480 Norristown Road. Suit 200 Blue Bell, PA 19422



천원의 식사

천원의 식사는 한 끼 천원으로
경제적 부담 없이 식사를 해결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금 사업입니다.



천원의 식사를 만든
천사를 소개합니다

김경숙
송태진
오세경



백옥자
송학린
원정윤

이만택 이방기 임낙균
조무상 한귀희

천원의 식사
온라인 아너 월



모금에 참여한 후원자들의
이름은 학생회관과 온라인
아너 월에 분기별로 새겨집니다



천원의 식사 후원 신청은
간단 참여 신청서를 찍어
213-435-1974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천원의 식사
간단 참여 신청서

저 성함 은(는)

매월 기부액 원으로

천원의 식사 후원에 참여합니다

휴대폰번호

학과 년 입학



서울대학교발전재단 미주재단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Inc.

TEL 213.435.1974

EMAIL america@snu.ac.kr

천원의 식사
자세히 보기



제18대 서울대 미주동창회

회장 황효숙(사)

상임고문: 송창원(문), 김권식(공), 신학철(공)
 고문: 한홍택(공) IT 담당
 이희운(농) 지속가능 발전기획 담당
 이준수(공) 조직관리 담당
 신용남(농) 법률 담당
 박평일(농) 친선 담당
 오인환(문) 전략개발 담당
 김태환(의) 미네소타 프로젝트 II 의학 담당
 문성인(공) 지부지원 담당
 주한수(수) 특별행사 담당
 이승화(공) 세대간 소통 담당

차기회장 박상근(법)

명예회장 이상강(의)

역대 회장

박윤수(문), 강수상(의), 이병준(상), 오인석(법),
 이용락(공), 오홍조(치), 이영목(공), 이진구(농),
 송순영(문), 김은종(상), 오인환(문), 손재옥(가),
 윤상래(수), 신용남(농), 노명호(공)

집행부

사무총장: 이희운(농)
 총무국장: 임동근(경제)
 재무국장: 손창수(상)
 섭외광고국장: 홍선례(음)

동창회보 편집위원회

발행인: 황효숙(사)
 편집고문: 박용필(문)
 편집장: 신복례(인문)
 편집위원:
 김정필(공), 정태영(문), 이준수(공),
 한정희(미), 윤정아(생), 최화진(음),
 문성인(공), 김랑국(사), 이춘우(자연대),
 정해원(자연대), 백승아(자유전공)
 편집디자인: 조준호

지속가능 발전기획 위원회

위원장: 이희운(농)
 위원: 박현아(공), 강경철(공)

브레인 네트워크

국장: 변정민(공)
 SNU 포럼 위원회: 위원장 김재훈(공)
 Entrepreneurship 네트워크 위원장:
 김랑국(사)

장학위원회

위원장: 한홍택(공)
 위원: 신용남(농), 임헌민(공), 이준수(공),
 임준원(공), 최인숙(약), 최화진(음),
 김광수(자), 문성인(공)

나눔위원회

위원장: 이성숙(가)

회칙위원회

위원장: 이준수(공)
 위원: 김용현(상), 최경선(농)
 최진석(법), 한재은(의)

포상위원회

위원장: 황효숙(사)
 위원: 각 지부 회장

감사

김영석(공)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SNU Alumni Association USA

전화 (612) 280-7589 | 이메일 contact@snuua.org | 웹사이트 www.snuua.org

주소 855 Village Center Drive, Suite 357, North Oaks, MN 55127

미주동창회보 편집 규정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기고문은 회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투고된 글의 게재 여부는 편집회의 등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미주 지역동창회 회장단

알림: 2026년 새로 지부장이 결정된 곳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snuua.org

남加州 S.CA/NV (회계연도 Feb~Jan)
 회장 양수진(간호대80) T: (714) 335-2148
 sujinyang2011@gmail.com

캐나다 밴쿠버 (Jan~Dec)
 원경란(의대 84)
 T: (778) 883-1678
 estellewon@gmail.com

캐나다 앨버타 (Mar~Feb)
 정중기(공대 70)
 T: (403) 617-7585
 monicaWshaw.ca

미네소타 Minnesota (Jan~Dec)
 문성인(공대 88)
 T: (952) 250-3500
 msungin@hotmail.com

미시간 Michigan (Jul~Jun)
 이광진(공대 81) T: (248) 595-2836
 kmikelee@umich.edu

북加州 San Francisco (Feb~Jan)
 김범섭(공대 79) T: (408) 464-4502
 beomsupkim@gmail.com

오레곤 OR/ID (Jan~Dec)

알래스카 Alaska (Jan~Dec)
 윤재중(농대 55)
 T: (907) 223-0887
 jaejyoon@hotmail.com

뉴잉글랜드 MA/RI/NH/ME/VT (Jul~Jun)
 원덕수(공대 72)
 T: (617) 921-6798
 douglasdwohn@gmail.com

시카고 IL/IN/WI (Jan~Dec)
 이동균(공대 75)
 T: (847) 644-4807
 dlee1917@yahoo.com

샌디에고 San Diego (Jan~Dec)
 오충훈(자연대 81) T: (951) 795-8687
 peter.oh@asml.com

워싱턴주 Washington (Jan~Dec)
 이정관(농대 83) T: (425) 998-4150
 jklee234@yaho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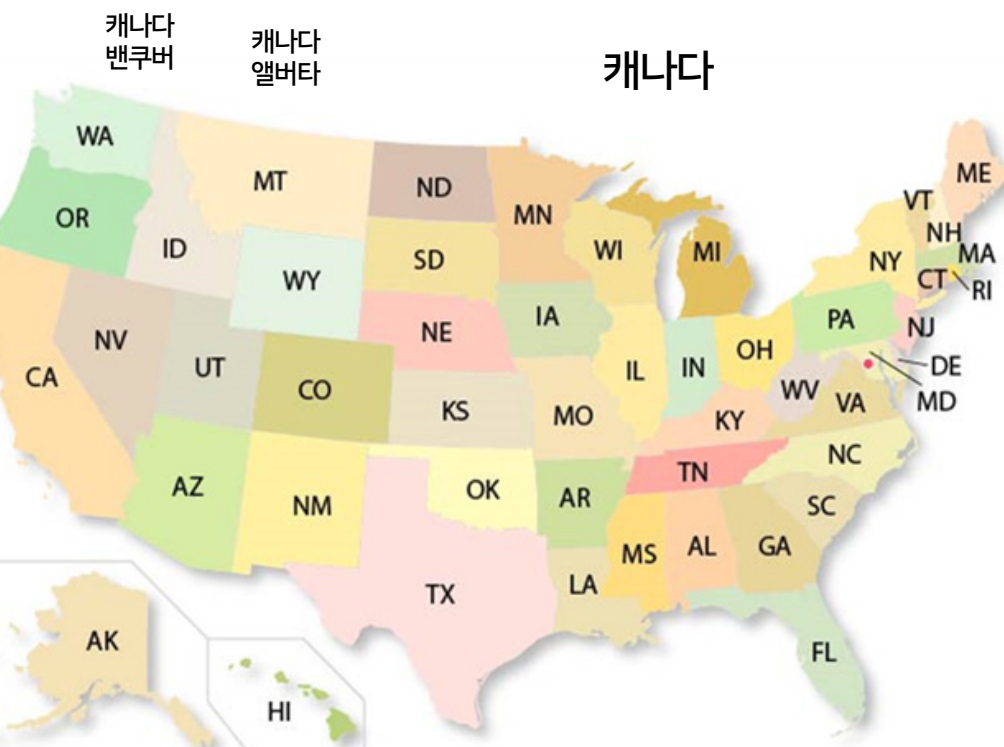
오하이오주 Ohio (Jan~Dec)
 이성우(상대 72) T: (614) 370-5761
 rimshake@hotmail.com

하와이 Hawaii (Jul~Jun)
 성낙길(문리대 77) T: (217) 508-8711
 nsung@hawaii.edu

북텍사스 LA/Dallas (Jan~Dec)
 김영훈(농대 95)
 kim0hun@gmail.com

록키마운틴스 MT/CO/WY/NM (Jan~Dec)
 최문기(공대 73)
 mungchoi@hotmail.com

휴스턴 Huston (Jan~Dec)
 회장 김정환(공대 80) T: (832) 638-7194
 kandc719@gmail.com
 부 김건호(공대 91)
 회장 kunhok@gmail.com



뉴욕 NY/NJ (Jul~Jun)
 김병순(사회대 82) T: (703) 407-4928
 kbs8717@gmail.com

워싱턴 DC DC/MD/VA/WV (Jan~Dec)
 남욱현(경영대 84) T: (703) 898-6429
 minamusa@yahoo.com

커네티컷 CT
 박성훈(자연대 91) T: (781) 812-8778
 shparkdream@gmail.com

필라델피아 PA/DE/S.NJ (Jul~Jun)
 김영석(음대 74) T: (215) 287-3939
 imtenor@hotmail.com

중부 텍사스 Mid-Texas
 이학호(수의대 59)
 T: (512) 290-1911
 hakho3830@gmail.com

유타 Utah (Jan~Dec)
 김한섭(공대 93)
 T: (734) 904-9672
 hanseup@ece.utah.edu

조지아 GA/AL/MS (Jan~Dec)
 김인구(농대 87)
 T: (404) 547-1859
 kevin@ikkimlaw.com

캐롤라이나 SC/NC/KY (Jan~Dec)
 정신호(자연대 78) T: (417) 277-1636
 sinho.jung@duke.edu

애리조나 Arizona
 정인주(농대 82)
 T: (602) 510-9196
 snuarizona@gmail.com

하틀랜드 IA/MO/NE/AR/OK (Jan~Dec)
 이주현(미대 92)
 T: (913) 220-3021
 june.cho@gmail.com

플로리다 Florida (Jan~Dec)
 조동건(법대 65)
 T:
 dcho0806@bellsouth.net

테네시 Tennessee (Jan~Dec)
 염신철(공대 98) T: (310) 689-6366
 syeom@alum.utk.edu

SNUAA EDGE

2026 SNU Young Alumni Connect in the Bay Area

Connect. Inspire. Grow Together.

Connecting SNU Talent for Innovation, Leadership, and Collaboration



Time

Fri., August 14, 6:00 PM - 10:00 PM
Sat, August 15, 9:00 AM - 10:00 PM



Place

The Westin San Francisco Airport
1 Old Bayshore Hwy, Millbrae, CA



Contact

edge.snuaa@gmail.com



Registration

<https://bit.ly/SNUAA-EDGE2026>

1 Vision

Create a premier global platform where younger alumni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connect across industries, generations, and countries to foster innovation, entrepreneurship, mentorship, and lifelong collaboration.

2 Objectives

Strengthen the global network among younger SNU alumni.
Build stronger ties across the global SNU alumni network
Encourage collaboration in:



Startups



AI and technology



Research



Media and creative industries

Create mentorship opportunities between senior and younger alumni.
Position SNUAA as a leading global alumni community.

3 Target Audience

Primary Audience

- SNU alumni in their 20s–40s
- Young professionals
- Founders and entrepreneurs
- Engineers and researchers
- Graduate students
- Investors and operators
- Professionals in AI, biotech, finance, media, and venture capital

Geographic Reach

- Young alumni nationwide in the U.S.
- Korea-based alumni visiting Silicon Valley
- International SNU alumni





2026 홈커밍 일본 온천 힐링 여행

JAPAN

YAMAGATA

2026. 10. 12 (월) - 16 (금) (4박 5일)

황금빛 들녘과 영산의 정취,
고즈넉한 료칸의 온천까지

가장 깊은 일본의 가을이
야마가타 쇼나이에 있습니다.

주요 방문지

- 사카타 (酒田)
- 쇼나이 (庄内)
- 히지오리 온천 (肘折温泉)
- 초카이산 (鳥海山) / 하구로산 (羽黒山)
- 산쿄창고 (山居倉庫)



참가 문의

최진석 (법대 64) | (213) 321-6428

임동근 (총무국장) | (612) 280-7589 | contact@snuuaa.org